

兩班傳의 作家意識

金 惠 淑

- | | |
|----------------------------------|---------------------------------|
| I. 序 | 3. 放璣閣外傳의 人物 說定方式과 旌
善兩班의 意味 |
| II. 中心 人物 論議에 대한 再考 | 4. 燕岩의 士意識과 旌善兩班 |
| III. 旌善兩班의 作中位相과 作家
意識 | IV. 郡守의 作中位相과 作家意識 |
| 1. 作品論理上의 旌善兩班의 位相 | V. 富人의 作中位相과 作家意識 |
| 2. 作品論理上에서 추출되는 旌善
兩班의 行爲의 意味 | VI. 結 |

I. 序

한국 한문학의 연구에 있어서 연암 박지원만큼 빈번히 考究의 대상이 되어온 작가는 드물 것이다.¹⁾

燕岩 研究는 그 초기 단계에 있어서 실학사상과 近代意識의 究明이라는 大命題 下에 출발되었고 따라서 作家論이主流를 이루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作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 및 당시의 사회 변동상과 연애 지은 思想論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檢證하기 위해 作品을 引證하는 것이었다는 느낌이 적지 않다. 즉 초기 燕岩論의主流는 그가 철저한 실학정신의 소유자로서 反封建主義와 階級打破를 主唱했고 黨民의 價値를 發見 肯定함으로써 近代精神의 發芽를 보여준 時代의 先覺이며 이러한 그의 사상이 그의 文學作品 속에 散在해 있음을 引證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燕岩 研究에 있어서 作品論이 대두 되기 시작한 것은 60年代 후반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70年代에 들어서야 작품 자체의 구조를 분석·해명하고 작

1) 李源周, 〈兩班傳 再考〉(車溶柱編, 《燕岩小說研究》啓明大出版部, 1984), p. 455에 의하면 1982년 5월 당시 연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은 103편이며 그중 소설에 관한 연구논문은 78편이라고 한다.

가의식을 규명하는 본격적인 작품론의 단계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²⁾

그리고 漢文學 研究의 日淺함으로 인하여 散在한 漢文學作品을 어떻게 재 계획하고 가치화 할 것인가의 方法論이 아직 모색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작가에 있어서나 그 作品의 연구는 열핏 現在의 文學 장르 체계에 쉽게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漢詩 및 소위 小說類에 집중되어 왔고 따라서 燕岩 作品論도 ‘放璣閣外傳’의 遺傳 作品들과 ‘虎叱’, ‘許生’, ‘烈女咸陽朴氏傳’, 등 이른바 小說類³⁾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兩班傳’ ‘虎叱’ ‘許生’에 대한 큰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既存의 研究 現況을 一瞥하고 그 論議들을 주목할 때 作家論과 作品論의 相互 聯關에 대하여 再考하게 된다.

文學研究로서의 作家論의 관심은 그가 作品을 產出해 낸 制作者라는 데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의 作品의 總體的 과학에서 드러나는 作家精神을 규명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며 作家 자신의 個人的 삶의 모습이나 社會的 여건 등을 결국 그의 作品 產出의 動因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국 個個 作品論의 總體的 集積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作家論의 기본 자료이며, 個別 作品論 또한 한 作家에 대한 總體的 理解를 바탕으로 할 때 좀 더 선명하게 개진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作家論과 作品論은相互 補完的인 것이어서 사실상 엄격히 구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個別 作品은 그것 자체로서 獨立, 完結된 것이지만 한 作品에 대한 本源的 이해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 作家의 餘他의 作品들에 대한 省察은 무엇보다 필요 한 기초작업이며 그위에 作家의 個人的인 삶의 모습, 사회적 여건 등에 대한 탐색이 더해질 때 보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本稿는 이러한 見地에서 ‘兩班傳’을 再吟味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선 ‘兩班傳’ 이외의 燕岩의 作品들을 널ти 援用함으로써 ‘兩班傳’의 이해에 도

2) 閻丙秀, 〈朴趾源 文學의 研究史의 檢討〉, 《한국학보》13, 1978) 및 朴箕錫, 《朴趾源文文學研究》, 三知院, 1984) 참조.

3) 이들의 장르규정에 관하여는 金台俊의 《朝鮮小說史》이래 줄곧 小說로 지칭되어 왔으나 최근 ‘傳’의 名稱을 가지 一群의 作品과 虎叱, 許生이야기는 장르상 구분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대두되고 있다. (拙稿, 〈傳·書事·野談의 대비적 고찰〉 《세티 姜漢永교수 고회기념논문집》 아세아 문학사, 1983 및 金明昊, 〈燕岩文學과 史記〉, 《兩田 辛鎬烈先生 古稀紀念論叢》, 创作과 批評社, 1983. 〈燕岩의 현신인식과傳의 변모양상〉, 《친환기의 동아시아 문학》, 创作과 批評社, 1985 참조)

달할 것이다. 그러나 作家의 전기적 事實이나 사회적 여건 등과 ‘兩班傳’과의 상호 연계성 규명을 위한 작업은 後稿로 미룬다.

또한 作品論에 있어서 前提되어야 할 중요한 고려점의 하나는 作家의 장르 의식이다. 자신의 作品 樣式을 어떤 既存 장르에서 선택하며, 創作 行爲와 既存 장르間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어떤 解釋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作品의 形象化 方式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써 作品 製作 行爲를 구속 제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前代 文學 作品의 形象化 方式에 대한 理解는 現在의 장르 體系에 맞추어 斷言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장르적 판점을 달리할 때同一한 작품이 서로 다른 면모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漢文學 作品들을 어떻게 體系化하고 價值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70년 代 이래 우리 문학 연구가 안고 있는 커다란 課題의 하나다. 燕岩의 이론과 小說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음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放璣閣外傳에 속한 作品들 전반의 형상화 방식에 유념하면서 ‘兩班傳’의 이해에도 달하려고 한다.

本稿가 指向하는 최종 목표는 作中人物들의 作品內의 意味를 추적함으로써 作家의 倫理·社會 意識을 導出해 보려는 데 있다. 그것은 이 作品이 ‘傳’의 題名 下에 樣式化되고 있기 때문이다.⁴⁾

‘兩班傳’에 대한 주요 既存 研究論文으로는

個別 作品論으로 李家源, 《兩班傳 研究》(大東文化研究 제 1집, 1963)⁵⁾

李源周, 《연암 小說考 I》(여문학 15호, 1966) 및 《兩班傳 再考》(車溶柱編, 《燕岩研究》, 啓明大學校出版部, 1984).

江黃江, 〈兩班傳 研究〉(《한국학보》 13집, 1978)가 있고

作品의 素材論的 源泉에 관한 연구로 成耆說, 〈兩班傳中 當行禁止節目에 대하여〉(《人文科學研究論文集》 제 4집 仁荷大, 1978)이 있으며

個別 作品論은 아니지만 연암의 餘地 作品과 함께 비교적 상세히 論議를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4) 傳은 本質의으로 人物의 行跡 記述을 통하여 倫理的 典範을 提示함으로써 社會的 指標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여겨진다.

5) 이 논문은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乙酉文化史, 1965) pp. 292~364에 再收錄되었으므로 本稿에서는 이를 참조함.

李在秀, 《한국소설연구》(蠻雪出版社, 1973).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漢文短編을 中心으로—〉(三知院, 1984)를 들 수 있다.

II. 中心 人物 論議에 대한 考再

‘兩班傳’을 다룬 既存 論議에서는 本傳이 小說 장르로 다루어져 왔는데 그 中心 人物에 관한 見解부터가 各樣 各色이다. 대표적인 例를 들면

李家源 先生은 ‘旌善 兩班’을⁶⁾ 李源周 教授는 ‘郡守’를⁷⁾ 朴箕錫은 ‘旌善賤富’⁸⁾를 각각 主人公 또는 中心 人物로 파악하였다. 결국 作中 重要 人物 셋이 觀點에 따라 각기 달리 파악되며 모두가 中心人物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으로 ‘兩班傳’理解의 難解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兩班傳’이 ‘傳’이라는 傳統的 漢文 樣式에 대한 장르의식 하에 製作되었으리라는 것은 그 題名, 燕岩의 身分, 修學課程, 그리고 무엇보다도 ‘放矯闖外傳’이라는 集傳의 題名 下에 수록된 作品의 하나라는 사실 등으로 쉽게 짐작될 수 있다.⁹⁾ 물론 ‘法古創新’을 持論으로 하고 있는 그의 文學論을 考慮할 때¹⁰⁾ 사마천의 史記 列傳에서始源한 諸般 전양식의 원리에 違背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燕岩 나름대로 樣式的 變用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지만 공교롭기만한 創新보다는 오히려 고루하더라도 法古를 따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고 보면 ‘兩班傳’을 비롯한 餘他의 傳들이 비록 연암 나름대로의 獨창성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 樣式化의 原理的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철저히 傳의 正統性을 固守하고 있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既存의 中心 人物 論議는 일단은 現在의 小說 장르 개념에 의해서 가 아니라 전통적 한문 장르인 ‘傳’ 장르 개념 하에 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6) 李家源, 《燕岩小說研究》p. 295. 참조.

7) 李源周, 《燕岩小說考 I》, 《어문학》15, 1966, p. 46) 참조.

8)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三知院, 1984), p. 131.

9) 金明昊, 〈燕岩文學과 史記〉에서 이미 ‘放矯闖外傳’의 九傳을 史記 列傳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傳統의 傳寫식에 입각하여 製作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10) 朴趾源, 〈楚亭集序〉, 《景印文化社 影印本 〈燕岩集〉》p. 12 참조.) 이하 燕岩集에 한하여 書誌 를 생략함.

‘兩班傳’은 彙傳의 題名 下에 쓰여진 作品이다. 가장 典型的인 형태로라면 양반에 대한 記述者 自身의 主觀的 論述과 아울러 이것을 實證할 수 있는 例話的 典範으로서 多數의 個別 兩班들의 傳記의 行跡이 集積될 것이다고 그 결과 兩班이라는 部類의 人間群의 理想的 典範을 提示 했을 것이다. 즉 多數 兩班의 個人傳을 集積 記述하고 이 人物들에 대한 논평을 통하여 記述者의 兩班論을 개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상적 兩班像을 定立했을 것이다.¹¹⁾

‘兩班傳’은 “兩班者 士族之尊稱也”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典의 序頭 記述 方式이며 本傳의 目的이 바로 兩班部類 全盤을 立傳대상으로 하는 것이요 한個人의 傳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이어서 “旌善之郡 有一兩班……”으로 記述되고 있으므로 旌善 兩班의 行跡은 彙傳인 ‘兩班傳’을 이루는 個別 例話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핏 보면 本傳이 보편적 彙傳 기술방식처럼 個別的인 몇몇 兩班傳의 모음으로 完成되지 않고 단 하나 旌善兩班의 行跡만으로 彙傳을 完成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선은 旌善兩班의 例話속에 삽입되어 있는 두개의 文卷이 兩班部類 全體를 群集的으로 ‘傳’化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第一文卷의 序頭 “右明文段 厥賣兩班 爲償官穀 其直千斛”은 이것이 文卷임을 明示한 것이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維厥兩班 名謂多端 讀書曰士 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武階列西 文秩敘東 是爲兩班”은 바로 傳에서 個人的 行跡을 기술하기에 앞서 반드시 기술되고 있는 立傳人物의 姓名과 本貫 記述方式에 해당되는 기술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第二文卷의 첫머리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士 稱以兩班”的 경우에도同一하다. 즉 “閔翁者 南陽人也”에서 閔翁이 南陽이라는 지역에 本源을 두고 있는 인물임을 밝히는 것과同一하게 ‘兩班은 讀書, 從政, 有德을 그리고 文武라는 秩階를 本源으로하는 人物이요’ ‘兩班은 民에 本源을 둔 人物’임을 明示한 것인데 단지 그 記述 文章의 表現方式만을 적절하게 변형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 序頭 記述에 이어지는 文卷의 내용이 모두 兩班部類의 行爲 記述

11) 可馬遷의 史記 列傳중 〈刺客列傳〉, 〈循吏列傳〉, 〈酷吏列傳〉, 〈游俠列傳〉, 〈佞幸列傳〉, 〈滑稽列傳〉, 〈儒林列傳〉, 〈日者列傳〉, 〈龜策列傳〉, 〈貨殖列傳〉 등 참조.

임으로해서 두개의 文卷은 文卷의 양식을 빌어 삽입된 또다른 두개의 ‘傳’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兩班傳’은 傳의 기술방식을 충실히 활용하고 있는 세개의 個別的인 傳으로 구성됨으로써 傳統的인 彙傳 記述方式을 철저히 답습했고 두개의 傳을 다른 하나의 傳속에 포괄시킴으로써, 그리고 傳 그대로가 아닌 文卷의 양식과 겹침시킴으로써 作品構造를 立體化하면서 연암 나름대로의 獨創的인 변형을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兩班傳’의 中心人物論議에서 既存論議의 觀點과 이 作品의 樣式的側面을考慮하여 再考할 때는 旌善兩班을 中心人物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本作品의 기술방식과 傳양식에 대한 作家意識을 충실히 배려한다면 정선 양반과 第一文卷의 兩班群, 第二文卷의 兩班群을 포함하는 ‘兩班群’ 전체가 中心人物이 되는 것이어서 어떤 個人을 中心人物로 내세울 수는 없다. 그러나 旌善富人이나 郡守가 中心人物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다.

III. 旌善兩班의 作中位相과 作家意識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兩班傳’에서의 旌善兩班의 이야기는 典範的兩班像의 定立을 위해 集積된 個別的인 傳들의 한例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전통적인 傳의 양식적 개념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旌善兩班은 典範으로서의 兩班의 속성의 어느 일면을 강하게 表出할 수 있는 人物이어야 한다. 더우기 旌善兩班의 이야기는 實存한 個人的 特異한 行跡을 記錄보존함으로써 俗社會의 價值規範을 定立하려는 目的下에 記述되는 實存人物의 傳이 아니라 實在했을 수도 있는 人物, 그러나 實在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人物에 假托하여 作家의 人生論을 開進하려는 托傳의 방식으로 記述되고 있으므로 그主人公인 旌善兩班은 作家에 의하여 부정적 양반상으로 제시되던 공정적 양반상으로 제시되던 간에 어쨌든 궁극적으로 燕岩이 가지고 있는 兩班像의 어떤 典型的 속성을 아주 선명하게 表出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된다. ‘兩班傳’이 彙傳的 題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個別的 多數人の 行爲의 集積과 그에 대한 叙述者の 論讚으로 構成되지 않고 단

하나 旌善兩班의 例話로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실은 旌善兩班이 作家의 觀點을 충분히 表象화할 수 있도록 假托된 虛構的 人物이기 때문일 것이다.¹²⁾

따라서 旌善兩班의 作中 의미와 그에 대한 作家 意識을 紛明하는 것은 곧 '兩班傳' 이해의 첨경이 된다고도 볼 수 있다.

'兩班傳'을 言及한 거의 모두 論議에서 旌善兩班은 燕巒에 의하여 제시된 극히 否定의 이거나 혹은 거의 否定의인兩班의 表象으로, 작가의 비평의 대상인 것으로, 言及되어 왔다. 例친대

'軟骨 離力으로 李朝 封建制度 밑에서 寄生하는 士, 僞善과 徒讀의 길과 人間의 破裂에 이르며 매매할 수 없는 兩班權을 매매하려는 奸弄과 惡에 가득찬 人物'¹³⁾

'무기력하고 무능한 불구적 부적응 양반, 天爵인 身分을 판 본분을 저버린 人物'¹⁴⁾

등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李源周 教授만은 “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로 보아 旌善兩班에 대한 作家의 愛情은 大端하며 無能한지는 모르나 어떻든 惡을 行하지는 않는 人物이라고 하여 作家에 의해 肯定의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兩班像으로 보았다.

結論부터 이야기한다면 旌善兩班은 燕巒에 의하여 肯定되기 만한兩班像도 否定되기 만한兩班像도 아니다. 肯定의 측면과 否定의 측면 兩性으로 表象화된 人物로서 基礎의인兩班像의 典範으로서 긍정적으로 제시된 人物이며 궁극적 양반像으로는 부정적으로 제시된 逆說性을 内包하고 있는 人物이다.兩班의 充分條件으로서의 典範 즉 理想型으로서의 양반像이 아니라 兩班의 必要條件으로서의 典範 즉 最少 基本으로서의 兩班像으로 제시된 人物이다.

이제 성급히 앞세운 결론을 몇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檢證하기로 하자.

(12) 兩班의 身分이 문으로 매매되는 현상은 當時 實在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p.314 참조), 兩班傳은 전혀 虛構의 假托이라 고단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둘째없이 旌善에서 이어남이라는 근거도 없고 燕巒自身이 旌善兩班의 人物의 身分을 소상히 밝히지 않고 “旌善之郡 有一兩班”과 같이 托傳의 頭頭 記述法을 채택함으로써 “양반 매매 사건”的 實事에서 제재했지만 旌善兩班의 其他諸般 行爲는 작가의 賓賓적 虛構이리라는 인식을 강하게 준다. 따라서 旌善이라는 地名도 現實의 地名으로서의 實證의 의미보다는 象徵의 寓意性이 오히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3) 李家源, 前揭書, pp. 292~364 참조.

(14) 黃渙江, 〈兩班傳研究〉, 《韓國古典小說研究》(李相澤·成賢慶編, 새문사, 1983 pp.381~382.) 이 노론은 《한국학보》13집 (1978)에 발표된 것의 재주목임

1. 作品論理上의 旌善兩班의 位相

‘兩班傳’의 다음과 같은 몇 개절을 차례대로 연결하면 旌善兩班의 作品內的 位相이 밝혀 진다.

作品序頭에

“兩班者士族之尊稱也 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

第一文卷에

“維厥兩班 名謂多端 讀書曰士 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第二文卷에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士 稱以兩班”

하늘에 있던 四民 중에 가장 귀한 것은 士(士族)이다, 士族을 품어 兩班이 되고 한다. 兩班은 그 屬性에 따라 士, 大夫, 君子로細分命名할 수 있고 그 중 讀書하는 者를 士라고 한다. 旌善兩班은 讀書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旌善兩班은, 兩班의 素原이며 四民 중에 가장 귀한 士族의 表象이다. 그들이 作品文脈 上의 旌善兩班의 位相이다.

旌善兩班을 肯定의 으로 表出하자는 뜻이 作家意識이라면 作家는 這件 作品文脈上 兩班의 素原으로 鑑定하고 있는 士를 부정하는 것이다. 即是 四民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社會의 職分에 의한 것이다. 職分을 士·農·工·商으로 구분하는 사회 구조 자체에 대한 회의와 肯定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士의 職分만을 부정한다면 農·工·商에 의한 社會再構造화로 이어지거나 또는 말려 方案이 제시되거나 암시되어야 한다. 作品에는 그러한 암시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第 2 文卷의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士”는 文脈上 ‘放稿閣外傳 自序’의 “士乃天爵”이란 개설과 함께 읊어 할 때¹⁵⁾ 民을 四民으로 구분하는 社會構造는 变경될 수 없는 것이라고 四民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士인데 그 士의 素原을 旌善兩班을 통하여 表象화하겠다는 것이 作者의 의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旌善兩班은 오히려 肯定의

15) 第一、第 2 文卷은 旌善兩班의 誓語속에 客觀化되어 記述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旌善兩班 論議로서 그 의문 직접 드러내고 있는 自由와 열매식을 주 있다.

으로 세시된 人物의 가능성이 더 크다.

2. 作品論理에서 추출되는 旌善兩班의 行爲의 意味

‘兩班傳’에는 旌善兩班의 行爲에 대한 作家의 직접 논평은 전혀 없다. 다만 旌善兩班의 品性을 ‘賢’이라고 시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作家에 의하여 직접 시술되고 있는 ‘賢而好讀書’의 性品과 行爲에 대한 作中 人物들의 反應이 나타나 있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하는 군수들은 그를 禮로써 찾아 봤는나(必親造其廬而禮之)

班兩의 아비는 그의 뜩서 행위가 한 풀 이치의 가치도 없다고 여긴다(生平子好讀書 無益縣官羅 啟兩班 不置一錢)

旌善兩班의 品性과 行爲는 郡守들에 의하여는 긍정적으로 그의 아비에 의하여는 否定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肯定, 否定의 意味는 作品내에서의 郡守 및 아비에 대한 作家 意識이 규명되어야 올바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論議의 편의상 이는 後述하려 한다.

‘好讀書’는 정선 양반의 日常生活에서 항상 지속되는 가장 核心的 行爲이고 그밖에 사건이 전전됨에 따라 드러나는 旌善兩班의 諸般 行爲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짐이 가난하여 郡의 환곡을 빌어 먹었는데 여러 해 되어 千石이 되었다.
- ② 환곡을 갚을 수 없어 장차 9에 갈하게 되자 종일 읊 뿐 해설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 ③ 富人이 환곡을 갚아 놔놓니 양반을 팔라고 하자 아주 기뻐했다.
- ④ 양반을 팔고 난 후 離笠을 쓰고 短衣를 입었다.
- ⑤ 郡守가 찾아가자 길에 엎디이 빙고 小人이라 칭하며 갑히 쳐다보지 못했다. 군수가 놀라 머여가 물으며 “왜 스스로 낫추어 이처럼 욕되게 하시는가?”고 묻자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황송합니다 제가 갑히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반을 팔아 환곡을 찾았으므로 富인이 양반이다. 제가 어찌 갑히 옛 이름을 떠어쓰고 스스로 낫일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⑥ 사사로이 스스로 交易하고 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試事의 괴투리가 되므로 公廳에서 法的 절차를 거쳐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군수의 명에 응하여 公廳에 출두하여 公兄의 아래 서서 계약 成立의 법적 치리에 응했다.

以上의 旌善兩班의 行爲에 대한 作家의 직접 논평은 文面 上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식적 차원에서 판단하거나 혹은 作家의 직접적 기술은 아니지만 作家의 論議에 對應되는 作中 論理에 의하여 그 行爲의 意味를 규명할 수 밖에 없다.

兩班을 팔아 넘긴 이후 ④～⑥에 이르는 旌善兩班의 行爲에는 조금도 비양심적인 면이 없다. 그는 권보출수를 조금도 모르는 天真하고 고지식한 人物이다. 作品 첫머리에서 作家의 直接敘述로 記述되고 있는 ‘賢’ 한 品性 그대로의 人物이다. 바로 이러한 그의 품성이 초래한 結果의 行爲 및 狀況이 ①～③, 이다作中 아래의 말에 의하면 그는 언제나 독서를 즐기는 人物이다. (生平子好讀書) 文脈上 旌善兩班은 그의 生에서 讀書以外의 行爲를 한 적이 없다. 그는 오직 讀書하고 또 讀書하는 人物일 뿐이다.

作家의 論議에 해당하는 第二文卷에 의하면 양반의 이익은 막대한 것이어서 밭도 안 짚고 장사도 않고 약간의 文史만 섭렵해 가지고도 크게 터지면文科 규제로 작게 이루면 進士가 되는데 문과의 홍패는 길이가 두자를 넘지 않지만 온갖 물건이 구비되어 있어 그야말로 돈자루이고 전사가 서른 살이 되어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가도 오히려 이름 있는 薦官이 되고 잘되면 남행(南行)으로 큰 고을을 맡게 되어 귀는 일산 바람에 회어 지고 배는 흐령소리 떨어지자 “에이”함에 따라 불룩해지고 방안에는 단장한 기생이 둘러앉고 마당에는 우는 학을 꼭식을 먹여 키우는’ 팬인데 ‘粗涉文史’가 아니라 ‘生平’에 ‘好讀書’하는 旌善兩班은 어째서文科도 進士도 하지 못하고 수년을 환목을 구어 벼어 千石에 이르고 드디어 구금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인가 論者들은 한심같이 그의 讀書가 徒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燕岩은 그것을 讀者の 판단에 할길 뿐 스스로 言及하지 않았다. 文脈으로 보아서는 旌善兩班이 科擧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應試를 하거나 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그의 독서의 목적이나 무엇인지도 文脈으로는 알 수가 없다. 어찌 보면 그것은 꼭

적없는 독서인 듯도 하다. 그는 가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현실적인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독서만 하고 앉았으니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분명 한심하고 무능한 人物이며 徒讀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나 第二文卷과 旌善兩班의 行爲가 對比됨으로하여 드러나는 作品論理에 의하여 단언할 수 있는 바는 그의 讀書行爲가 徒讀임과 그가 무능한 人物임을 째기하자는 것이 작가의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文脈으로 보아 그의 독서는 분명 現實對應力이 없다. 그러나 作品論理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의 독서가 최소한 약간의 文史를 섭렵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도둑에 이르는 方便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한심할 지경인 그의 무능은 무능으로써 제시된 것이 아니라 비록 翡士로서 鄉에 居하고 있지만 적어도 武斷을 潛行함으로써 鄉民을 괴롭히면서 자신의 利益을 꾀한 적은 없는 良心的 行爲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결국 정선양반의 무능하고 현실대응력 없는 독서 행위를 통하여 작가가 제시하려고 한 旌善兩班의 品性은, 무능성이 아니라 자신의 學問이나 身分이나 門地를 現實的인 利益追求의 方便으로 利用하자는 않은(못한) 절박한 良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가의 이러한 의도는 양반을 판 이후에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④⑤⑥)를 통해 더욱 견고히 보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作品의 表面的인 結構로는 第一文卷이나 第二文卷은 旌善兩班의 行爲에 대한 직접 서술이 아니라 兩班一般 또는 그 중의 어느 部類의 行爲로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第二文卷은 作品論理上 旌善兩班의 行爲를 오히려 深層的으로 具體化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第一文卷도 같은 脈絡에서 이해될 수 있다.

旌善兩班의 行爲로서 오직 讀書만이 提示됨으로써 ‘五更常起 點硫然脂目視鼻端 會踵支尻 東萊博議 詩如水瓢’ ‘古文真寶 唐詩品彙 鈔寫如莊一衍百字’가 그의 讀書行爲의 具體的面貌을 記述한 것일 수 있다는 論理를 成立시킨다. 그리고 文脈上, 친한 일을 끊어 버리고 뜻을 고장하게 가진다(絕棄鄙事 希古尚志)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讀書行爲를 한다는 의미이므로, 또 실제로 정선양반은 독서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스럽게 정선 양반의 행위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旌善 兩班의 극도한 窮乏狀은 第一文卷上의 ‘忍饑耐寒 口不說貧’ ‘手毋執錢 不問米價’가 곧 그의 行爲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第一文卷上의 몇몇 행위를 정선 양반의 行爲 및 상황과 同一化 함으로써 이 文卷의 行爲의 대부분은 旌善 兩班이 마땅히 행했을 또는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행위와 다름 없다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수사적 기교를 발휘하여 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第二文卷이 第一文卷에 不滿足한 富人の “願改爲可利”에 맞추어 更作된 것이므로 第二文卷은個人의 利益을 추구하는 兩班의 行爲의 典型을 제시한 것이라면 第一文卷은 상대적으로個人의 利益 追求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兩班의 行爲를 의미하게 된다.

第二文卷에 대한 作家의 論議는 ‘四民중에 가장 귀한 것이 士이므로 上가 자기 신분을 이용하여個人의 利益을 취하려 의도하면 그 이익도 農工商보다 훨씬 크며. 따라서 士가 士의 신분을 私利 獲得에 이용하려 하면 도둑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으므로¹⁶⁾ 이와 相對的 意味를 가지고 前後로 並立되어 있는 第一文卷은 최소한 ‘士의 신분을 이용하여個人의 利益을 취함으로써 益가 될 수는 없었던 兩班’의 行爲로서의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다른 근거로 作品論理를 떠나 상식적인 기준에서 생각할 때도 이것은 별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성질의 행위가 아님을¹⁷⁾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禮記’ ‘小學’ 등 古經에 收錄된 實踐德目들을 根源으로 한 발상임을 증명한 既存 证据이 있다.¹⁸⁾ 古經의 實踐德目이 그 實行 過程에서 本旨를 잃고 형식화된 무의미한 것으로 변모되었다 하더라도 그 德目的 本旨마저 否定的 평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兩班傳’에서는 이러한 古經의 德目을 文卷의 形式을 빌어 兩班에게 요구되는 행위로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실행 과정에서 本旨를 잃고 盲目的으로固守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既存 证据의 도움을 받는다면 일암의 ‘兩班觀’은 古經에 근거를 두고 있는 古典的인 것이라는 추

16)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上 稱以兩班 利莫大焉……”으로 시작하여 兩班의 利益은 일기한 文卷에 대한 “已之己之 孟浪哉 將使我爲盜邪”라는 答은 自明하게 이와 같은 論議를 드리운다.

17) 李源周, 〈兩班傳 再考〉, 〈車溶柱編, 《燕岩研究》, 啓明大學出版部, 1984〉 참조.

18) 成善說, 〈兩班傳中 當行禁止節目에 대하여〉, 《人文科學研究所論文集》제4집, 仁荷大, (1978)

론을 가능하게 한다.

第一文卷의 행위들은 燕岩의 생각으로는 가장 基礎的이고 本源的인 선비의 삶의 대도로서, 새벽부터 온 종일 各種 書籍을 섭렵하면서 독서에 전념하는 士의 모습을 당시 조선에서 현실적으로 널리 읽히던 서적이나¹⁹⁾ 가난한 선비들의 日常 行態²⁰⁾를 풀어들여 사실적인 技法으로 記述한 것이다.

便宜上 ‘放矯闊外傳’의 自序에 記述된 ‘兩班傳’의 制作 動機와 論議를 접め시기면 第一文卷과 第二文卷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旌藩 兩班에 대한 作家意識이 좀더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士는 天爵이다. 士의 마음은 곧 志이다. 그 志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속과 이 이을 도모하지 말며 혈탈 해도 士를 떠나지 말고 곤궁해도 士를 떠나 말아야 한다. 名節을 뒤지 않고 부질없이 문벌을 팔고 世德을 팔다면 장사치와 무엇이 다르리오. 이에 양반질을 쓴다”

上迺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酷鬻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

燕岩이 의미하는 ‘士는 하늘이 내려준 벼슬’이란, 社會制度로써 固定된 四民이 절대로 빙경될 수 없고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이라는 확고한 階級意識을 나타낸 것²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士가 上일수 있는가 없는가는 人間社會制度로서 상속되는 身分階級에서 士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에 있거나 人間社會의 차원을 넘어서 절대公正의 상징인 天과 마주하여 上일수 있는 者만이 진정한 士라는 意味일 것이다. 天의 입장에서 人間個人과 마주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人間社會 上의 身分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과 그의 마음의 現顯인 行爲일 것이다. ‘士心爲志 其志如何不謀勢利’의 文句가 ‘士乃天爵’의 文句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연결을 대조한다는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그의 견해는 ‘兩班傳’ 가운데서 旌藩兩班의 환곡미를 카아주고 兩班을 산 富人에 대한 郡守의 言及에 시도 확인된다. 富人은 社會의 신분으로는 결코 양반이 아니나 그의 行爲에 대한 郡守의 言及은 “군자로구나! 富人이여, 양반이로다! 富人이여,

19)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p.335. 참조

20) 成耆說, 前揭論文, 參照。

21) 閔丙秀, 〈韓國小說發達史上, 漢文小說〉『한국小説大系』V, pp.1035~1056.

부유 하면서도 인색하지 않으니 義요, 남의 위급함을 구했으니 仁이요, 비
천함을 미워하고 존귀함을 사모하니 智로다. 이야말로 참 양반이다”²²⁾
이었다. 물론 富人이 환곡을 잘아주고 양반을 산 속셈은 군수의 언급과
는 相違하다 그러나 연암은 군수의 언급을 통하여 富人의 內心을 풍자하
면서 역설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양반이란 양반다운 뜻(志)과 그 뜻을 實行
하는 者요 양반이라는 사회적 징표로 획득되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규명하
였다.

신비의 마음이 곧 뜻이 된다. (士心爲志)는 것은 ‘士’라는 글자와 ‘心’이
라는 글자의 조합으로 ‘志’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造字 原理를 上의 의미 규정
에 이용한 것이다. 즉 ‘上’가 ‘上’일 수 있는 것은 바로 ‘士’다운 마음의 자
세때문이며 그 마음은 바로 ‘志’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암이 의미하는
‘志’란 다음에 이어지는 ‘不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로 보아 現實的으로는
‘勢利를 피하지 않는 마음’ 자체와 그 실천²³⁾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것은 達
하거나 窮하거나에 구애되지 않고 항상 계속되는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²⁴⁾

自序에 의하면 결국 선비를 선비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늘과 마주하여
평가되어 쳐야 한 그 마음에 달린 것인데 그것은 榮達하거나 困窮하거나에 구
애됨이 없이, 항상 지속적으로 勢利를 피하지 않고 名節을 담는데 있다. 名
節을 다지 않고 勢利를 추구하여 門地와 僕德을 팔다면 이는 강사치와 타류
없다. 결국 연암의 인식으로는 天의 입장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선비나 장사
치나 농민이냐 공인이냐는 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규정되어야 할 것이 아
니라 그의 뜻(志)과 그에 상응하는 行爲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연
암이 ‘兩班傳’을 저술함에 있어서 목적하는 바는 절대 공정한 안목에서의 양
반(士)의 本質 과학 즉 양반의 基本性 확인이요 基本性 확립임을 알게 된다.

‘兩班傳’에서의 第二文卷은 누가 보아도 ‘謀勢利’하고 ‘不飾名節’하고 ‘徒
貨門地 酷虧僕德’하는 行爲로서, 旌善兩班은 할 수 없었던 行爲이며, 第一文
卷은 ‘不謀勢利’ ‘飾名節’하는 行爲이며, 앞서 論證한 바 있거니와 그것을

22) 舊者哉 富人也 兩班哉 富人也 富而不客義也 急人之難仁也 惡卑而慕尊智也 此眞兩班, 〈印암
集〉, p.119.

23) 藍岩集 卷 1: 『答任章五論原道書』 및 『原上』《印巖集》pp.139~141)를 참조하면 연암의 恩推
體系是士人間의 心과 行爲는 분리될 수 없다.

24) ‘士心爲志’와 ‘達不離士 窮不失士’란 거절은 孟子의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
恒產 因無恒心(梁惠王·上)’에 근원적으로 영향받은 것으로 本傳의 사상적 基底로 보인다.

곧 作品 論理上 旌善兩班의 行爲와 거의 近接된다.

贅言하면 第一文卷에서 “維厥兩班 名謂多端 讀書曰士 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武階列西 文秩叙東 是爲兩班”이라 하였으므로 ‘士’는 ‘讀書’를 해야 비로소 ‘士’의 ‘名’을 ‘飾’하는 것이오. 정선양반은 충실히 讀書하였으므로 곧 ‘飾名’에 충실했던 人物이다. ‘節’은 語源的으로 ‘竹節(대의나리)’에서 유래하여 대에 나다가 있는 것처럼 人間의 行爲에 넣고 뉘지 않아야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게 되어 곧 行爲의 단속을 의미하는데²⁵⁾ 第一文卷은 바로全文이 이와 같은 내용이고 그것이 곧 旌善兩班의 行爲와 近接함은 앞서 言及한 바 있으므로 곧 정선양반은 ‘飾節’의 人物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 앞서 확인한 바 있거니와 정선양반은 上로서의 친애한 양심을 지켜온 이물로 부자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윤리적 節度를 지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순진하게 ‘飾名節’했고 ‘不謀勢利’했으며 그 결과 ‘家貧’하였고 ‘歲食郡糶’하여 ‘積歲至千石’이 되었고 그러하여 勢利追求에 이용하려고 하기만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兩班’이라는 社會的 身分을 조급도 이용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물가만하고 앉았다가 드디어는 좋아라고 그것을 팔아 뉘김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보면하였다. 어떤분은 “미혹 곤궁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어사는 안된다. (窮不失[::])”는데 그는 天爵인 ‘선비’의 선분을 재물에 물려 팔려고 하였다”고²⁶⁾하지만 이 양반은 배배 야말로 一面으로는 오히려 旌善兩班이 얼마나 칠자하게自身의 사회적 선분을 利益獲得에 이용하는데 無知頹으며 良心的인 人物인가를 逆說的이며 戲謔的으로 드리면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手法의 特性은 뒤에서 詳論 한것임) 정선양반은 四民之中에 最貴者士 利莫大焉’이니 양반을 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어떻게든 그려쥐고 이용하는 것이야 말로 個人的 利益追求의 짐정이요 자신이 처한 위기 모면의 열쇠라는 것은 꿈에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富人의 제의는 그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出口였다. 아직까지 그의 삶에서 단 한번도 혼신적인 힘을 발휘해 본적이 없고 또 그럴 수 있으리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한 평의 가치조차 없는 ‘兩班’이라는 答보

25) 節, 竹節也。說文「節, 竹約也」段注「約纏束也 竹節如纏束之狀」(辭海)。

26) 黃潤江, 前揭論文, 前揭書 p.382.

없는 이름을 넘겨 줄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면한 수 있다니 ‘좋아라고, 응한 수 밖에 없다. 말하자면 정선양반은 선분을 이용하여 ‘謀勢利’하는 데는 아주 白紙처럼 깔끔한 셈이다. 더구나 그가 결국 양반을 팔아 천석을 갚았다고 하지만 그자신이 스스로 양반을 팔아 위기를 면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고 단지 富人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자신의 위기를 보면 賦을 뿐이므로 그 매매행위조차도 자신의 선분을 利害關係와 결부시켜 인식하지 못했던 行爲임이 드러난다.

요컨대 양반권을 팔기 전까지의 정신양반은 ‘放矯闕外傳’ 自序가 규정하고 있는 바 양반의 올바른 생활 태도인 不謀勢利, 飾名節, 不貨門地, 不酷世德을 절지히 수행해온 한 표본인 양반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 양반의 절대 깔끔한 良心과 일체의 利慾에서 떠난 不斷한 讀書行爲야말로 선비가 회복해야 할 가장 基本的 삶의 자세임을 제시하려는 것이 作家의 一次的 意圖라고 볼 수 있다.

현실 대응 갑작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것으로 戲畫化되어 있는 정신 양반의 身分 상실 過程은 文脈 論理上 그의 良心의 절대 결백성을 極端的으로 強調하기 위한 遊說的 手法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士의 現實對應과 自己確立이라는 問題를 제기하면서 정선양반을 또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절대 깔끔한 良心은 士의 제 1 차적 基本品性이며, 讀書는 士가 平生을 함께 해야한 基本行爲이다, (讀書와 士의 問題는 ‘原士’와 관련하여 뒤에서 詳論하게 함) 그러나 士의 窶極的 目標와 價値는 經世澤民이라는 社會的 召命의 實現에 있다. 士가 진정한 의미에서 士일 수 있고 士로서의 意味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社會的 召命에 대한 自己認識이 확고한 때 가능하다. 經世澤民의 召命을 가장 正當하게 遂行할 수 있는 姿勢와 方法特點의 修練過程이 讀書로 기운을 더해 절대 깔끔한 良心이다. 이러한 召命意識과 그에 필요한 修練 및 姿勢정립에 대한 투철한認識이 곧 士意識이라고 할 때 士意識이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士를 떠날 수 없다. (참조：自序：“遠不離士 窶不離士”） 士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社會的 身分維持 次元의 問題이기보다는 良心의 固守와 召命感의 認識과 그에 따르는 修練 및 行爲履行의 問題이다. 따라서 旌善兩班의 兩班喪失에서 問題되는 것은 그의

社會的 身分喪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백한 良心으로 士의 本務인 독서에 충실하고 있었으나 上로사의 召命意識은 전혀 없었다는 데 있다 그의 社會的 身分이 당시 朝鮮社會의 制度의 因習에 의하여 회黜된 것이듯이 身分을 私利 追求에 이용하지 않은 그의 결백이나 가난을 감내하고 자속해온 讀書行爲도 自覺的인 士意識의 所產이 아닌 因習의 善德이다. 그러나 作品文脈에 一貫되어 있는 그의 良心은 上로사의 自我認識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해도 적어도 人間으로서의 基本倫理는 저버릴 수 없다(飾節)는 인식에 기초한 良心이라 할 수 있다.

士는 그 마음이 志이어야 한다. (“士心爲志 達不離士 窮不失士”:自序)志란 투철한 自己認識과 召命感의 自覺을 바탕으로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선 양반은 그認識의 自覺性(自主性)이란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진정한 士일 수 있고 다만 士의 虛像일 뿐이다.

요컨대 作家는 정선양반을 통하여 無自覺的 因習의 士의 良心과 本分을固守하고 있는 虛像의 善士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며 第一文卷을 暗脈的 으로 旌善 兩班의 行爲와 연접시킴으로써 그 해당 범위를 확대 一般化하면서 第二文卷의 惡上의 實像과 대비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반상의 제시는 이들의 행위에 대한 逆轉의 位置에 참다운 士像을 정립하려는 製作技法上의 方便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한편 이들을 통하여 당시 實存했던 士類의 實狀을 적나라하게 제시한 것으로 實上 不在의 現實的 위기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第二文卷 類의 兩班은 누가 보아도 假士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진정한 士意識이란 基本的 倫理를 因習의 으로 수행하는 정도에 머무려서는 곤란하다.

經世澤民이라는 窮極의 召命을 切感한다면 人間倫理를 저버리지 않는 한도내에서 끝까지 士를 固守해 나갈 최소한의 現實的 대응책(生計對策)은 마련되어야함이 상식이다. 아무리 “士心爲志”라고 하나 무작정 뜻고 앓아 ‘志’만을 부르짖을 수는 없다. (이러한 意識은 玉匣夜話의 ‘許生’에 보다 잘 드러나 있다) 따라서 혼설적인 生計대책 없이 딱연히 上의 本分만을 固守하는 것은 결국 士意識의 不足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조 말기의 善良한 多數의 士가 바로 이러한 실태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兩班傳은 혼설적

인 生計 對策을 外面한 정선 양반의 물탁상을 통하여 士의 生計 對策을 문제 삼는 것이기도하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소극적인 良心固守派인 貧士 個個人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許生’에서도 그 아래의 言及을 통하여 提起되고 있는 問題이다)

그리나 作品 文脈으로 볼 때 영암의 문제의식은 對社會的, 制度的인 모순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글제로까지 물고간 정선 양반의 속수무책인 無能은 第二文卷과 對比됨으로하여 無能으로의 의미 보다는 絶對 결백한 양심으로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第二文卷의 양반의 武斷·착취와 정선 양반의 無能이相互 對比됨으로 하여 身分을 이용한 利益追求의 相反된 兩極으로서의 성격이 극히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士로서의 自己認識이 自覺的이지 못하고 다만 因習的인 뿐이었다고 하지만 身分을 이용한 利益追求 따위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이 결백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그래도 人間的인 良心만은 지버리지 않았던 士는 결국 生計조차 유지할 수 없어 사회적 신분을 상실하고 말며 신분을 이용하여 악랄한 武斷과 끗은 횡포를 자행한 非倫理的인 一群의 士는 神仙처럼 잘 살고 있다는 그 對照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士의 양심과 자세조차 지니고 있지 않은 양반들, 그 양반들에 의해 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 士가 人間의 양심을 가지고 自己鍊磨의 學業을 계속함으로써 士의 社會的 召命을 수행할 수 있도록 成長할 수 없는 社會風土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 그것이 바로 정선양반의 글제적 물탁상을 통하여 부각된 作家의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선 양반의 現實對應力 상실은 그의 沒知覺과 認識不足에 기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貧士가 人間의 良心을 지키면서 生計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社會制度의 모순에 기인한을 의미한다. (이러한見解는 ‘許生’에서 아내와 許生間의 問答에서도 드러난다)

第二文卷에서 드러나는 바 士의 私利追求와 專橫은 私有財產의 축적을 가능케 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士는 그야말로 世德과 門地에만 의지하여, 生計유지를 위한 現實的 노력 없이도 오직 徒食으로 進仕를 위한 讀書에만 消

日할 수 있었고 그결과庶人인士가農으로서 자신의生計를 삼으며讀書를 지속하던古來의 관습을 완전히봉과시킴으로써世德과門地를 팔 수 없는庶人인士까지도농·공·상에판여할 수 없도록사회의 관습이굳어져오히려士의身分을私利추구에이용하지않았던良心的인士는어디에서도正當한生活基盤을획득할 수 없었던이조후기의病弊의 사회현상에대한근본적회의를바탕에깔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므로연암이근본적으로문제시하고있는것은無能하게관곡이나벌어먹고독서만을지속하고있는정선양반그가아니라生計를위해농·공·상그어느일에도종사하지않고,또관곡도벌지않고도,徒食하면서독서만하고앉았을수있을만큼一部집권층士계급에대대로富가축적되어온사회현실그것이라여겨진다. 『兩班傳』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上의 私利追求(謀勢利, 貨門地)를 경계하려는 것이고 이까닭에 私利追求에 전혀 白紙였던 정선양반이 그공정되어야할 典範으로 제시된 것이라 할수있다.

3. 放璣閣外傳의 人物 設定. 價值化方式과 旌善兩班의 의미

한작가의作品이라할지라도모든作品은 다른작품과는구별되는그작품나름의새로운독창적인면모를지니고있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는사실이다. 그러나한편한작가의여러작품들을두루접觸하다보면그制作技法이나人物설정방식, 사물인식, 세계관, 가치관등에있어여러작품을공통적으로貫通하고있는그작가나름의독특한몇몇特이있다는인상을떨쳐버릴수가없다. 이것이個別作品論의集積이作家論의기본소재가되어야하고또個別作品은그작가의다른작품들과비교검토될때더욱확실히이해된다는愚見을가지게하는근거이다.

周知하다시피‘放璣閣外傳’은‘馬駢傳’‘穡德先生傳’‘閔翁傳’‘廣文者傳’‘兩班傳’‘金神仙傳’‘虔襄傳’‘易學大盜傳’‘鳳山學者傳’의九篇으로‘易學大盜傳’과‘鳳山學者傳’은逸失되었다.

이九篇의作品들은作家의著述意圖에의해두계열로구분될수있다. 그하나는‘閔翁’‘虔襄’‘金弘基’‘廣文’과같이그신원이확실한實存人物의卓越, 神異한行跡을기록보존하고그렇게함으로써동시에人生및

社會問題를 시사하려 했던 것으로 文字 그대로 立傳하려 시도된 作品들이 다. 따라서 그 題名이 ‘虞裳傳’ ‘閔翁傳’ ‘廣文者傳’ ‘金神仙傳’과 같이 個人의 姓名임이 명백한 固有名詞로 되어 있다(‘廣文者傳’의 경우 그가 저자임으로 해서 그것이 그의 원래 이름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고 또 達文이라는 一名도 있으므로 ‘者’가 붙었다).

作品序頭도 “閔翁者 南陽人也” “廣文者 烏者也” “金神仙 名弘基也”와 같이 우선 그 이름을 밝히고 아울러 그 신원을 명백히 하는 文句로 시작되며 (虞裳의 경우는 작품에서當時對日 관계를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그의 신원을 더욱 확명해 제시했다). 내용은 그들의 실제 行跡 記述이 주가 되며 이들에 대한 作家의 論讚이 작가의 직접 기술로 노출된다. 이 作品들은 代置不可能한 個人의 行跡의 기술이며 그에 대한 작가의 論議이다.

다른 하나는 寓意性이 강한 거의 虛構에 가까운 作品들이다. 이들은 意象의 行動特性을 表象하는 듯이 보이는 수식어(鳳山, 穢德, 易學)²⁷⁾가 붙은 보통 명사(學者, 先生, 大盜)로 된 題名을 가지고 있거나 ‘兩班’ ‘馬祖’와 같이 群集的 보통명사의 題名을 가진다. ‘傳’의 양식을 빌고 있지만 이를 작품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實存人物인 個人 아무개가 아니라 어떤 행동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어떤 사람인 것이다. “閔翁者 南陽人也” “廣文者 烏者也” “金神仙 名弘基也” 등의 序頭 記述 方式이 根本적으로 閔翁·廣文·金神仙 등 實存한 個人이 自體를 문제삼고 있는 記述임과는 달리 “蟬橋者有友 曰穢德先生”(‘穢德先生傳’序頭)이나 “兩班者 上族之尊稱也 旌淳之都 有一兩班 豈而好讀書”(‘兩班傳’序頭)에서는 그 記述方式부터가 穢德先生이나 旌淳兩班은 蟬橋者の 친구로서 또는 上族인 兩班의 一人으로서 문제시 되고 있음이 분명하며 “馬祖舍倫 擊掌擬指 管仲蘇秦 鶴鵠馬牛之血 信矣….”(‘馬祖傳’序頭)에서는 아예 ‘個人 누구의 어떤 行爲’가 문제가 아니라 단적으로 ‘어떤 유의 행위’가 문제이다. 따라서 特定個人의 行跡記錄을 目的

27) ‘穢德’이 잘 雜藏의 의미는 作中에서 ‘穢其德而大墮於世’라고 말해지며 ‘易學’은 學富而倒였다는 順倒는 의미인데 燕山의 自序에 ‘世降衰季 宗廟虛辱 詩發含珠 慸賊亂紫 遷捷終南 從古以醜於是 逃易學大盜’의 기록과《역암집》p.114) 宗侃의 後記에 ‘穢聞之內明芝藻公云 易學大盜傳當時在托儒名而潛角權利勢焰薰灼者 府君作是文以譏之’를 보면 題名자자가 人物行爲를 表象임이 확인된다. ‘旌淳’은 江原道의 實地名이지만 동시에 ‘善을 표창한다’의 의미의 수명이며 ‘鳳山’도 黄海道 凤山과 ‘鳳이 사는(나라난)산’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수명인지를 作意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作中人物들의 特性을 表象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으로하는 傳의 양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作品 전반을 통하여 밝혀지는 이들의 신원은 ‘왕십리에 사는 嚴氏 姓을 가진 行首’ ‘정선에 사는 어떤 양반’ 또는 아예 題名과 상응하는 특정 個人으로서의 人物이 없어(馬駒傳의 경우) 제독에 세시된 이상 해명되는 것이 없다. 이들은 朴 旌淳이나 鳳山에 살지 않았아도 좋고 嚴氏라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穢德’이 문제이며, 누구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易學’이 문제이다. 이들은 朴氏여도 좋고 金氏여도 좋다. 이들은 同一特性를 가진 다른 人物로 대체되어도 좋은 人物들이다.

이들은 燕岩自身의 또 다른 글이나 다른 역사적 기록 등을 통하여 그려 유형의 人物의 實存 possibility를 충분히 입증할 수도 있는 평庸한 時代의 人物을 ‘傳’이라는 特殊 양식을 통하여 意識的으로, 價值화한 것으로 만하자면 實存人物이었다 할지라도 假托의 性格을 배제하기 어렵다.²⁸⁾ 그때문에 作品記述方式도 신원 및 행적이 확실한 實存人物의 傳을 기술하는 방식과는 달리 亂世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作家의 論議는 作家의 直接記述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作中人物의 論議로 치환되어 있다.

이러한 人物들을 對象으로하고 있는 이들 作品들은 그 人物 設定 方式, 人物의 價值化 方式, 作品 構成 方式에 있어서 어떤 同質의 意識과 技法이 作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차별화 드러나는 것은 逆說的 反語的 技法에 의한 人物의 價值화 方式이다.

‘穢德先生傳’에서는 ‘日負里中糞’하는 賤役夫這, ‘鳳山學子傳’에서는 ‘日不知書’의 農夫를 立傳對象 人物로選定하였는데 常識의 眼目으로 볼 때 이들은 立傳對象 人物의 첫째 具備條件即 卓越한 行跡을 키임. 凡常의 價值조차 부여받기 힘든, 行跡을 舉論할 여자가 있는 人物들로서 根本의 原理 모자히 ‘傳’의 양식에 收容될 수 없는 人物들이다. 이러한 인물을 立傳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데서부터 逆說과 양식적 면이는 이미 뛰어지게 요구 조건이 되다.

燕岩은 作中人物 蟬橘者를 통하여 人物解釋에 있어서 倫理와 理念에 立脚한 眼目으로 行為의 內的 意味를 透視한 것을 提起함으로써 卑賤的 褴役夫를

28) 양민철은 이러한 假托性과 實在性의 結合을 立傳對象에 似乎 reality가 特異의 構構의 並存할 수 있다.

가장 潔白하고 義롭게 守分 行道하는 君子의 風貌를 지닌者로, ‘推而大之’ 하면 聖人에도 이를 수 있는 存在로, 意味化하였다.

鳳山學者도 放矯閣外傳의 自序에 ‘可謂眞學’이라 한 것으로보아 같은 方式으로 價值化하였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馬駟傳’에서 作中人物로 具體化되어 있는 것은 立傳 對象 人物이 아닌 論議者들인데 이들은 ‘乞食於道’ ‘狂歌於市’ 하는 미친 거려지들이나 이들을 ‘자라리 친구를 가지지 않음’으로 해서 友道의 根本인 信을 毀損하지는 않았던 人物들로 부각, 이들의 毀損된 外行을 內密하고 완강하게 倫理를 固守하려는 意志의 反語的 結果로 歸屬시켰다. (“吾寧無友於世 不能爲君子之交, 於是相與毀冠裂衣垢面蓬髮帶索而歌於市”)²⁹⁾

한편 ‘馬駟傳’에서는 이들 三狂의 論議를 통하여, 모든 利益과 名聲을 초월한 眞情한 사립 혹은 忠義로운 사립인 듯이 보이는君子之交가 실은 假態와 偽面이며 敗道일 수 있음을 逆說의 으로 폭로한다.

‘易學大盜傳’은 放矯閣外傳 自序³⁰⁾나 後識³¹⁾를 참조할 때當時에 상당한 名聲을 얻고 있던 儒者가 실은 易學大盜임을 규명한 作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假托性이 강한 人物들을 立傳하고 있는 作品들이 공통적으로 逆說의 技法에 의거하여 人物을 價值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同一系列에 속하는 ‘兩班傳’ 또한 같은 方式의 技法이 적용되고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는데 실제로 同一한 技法에 의하여 意味化되고 있음이 이미 前項에 서의 文脈 檢證을 통하여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이므로 상세한 再論은 피한다. ‘穢德先生傳’이나 ‘馬駟傳’에서와 같이 作中人物의 論議 속에 병화하게 정선양반의 價值과 意味가 노출되고 있지는 않지만 文卷이라는 형식으로 변형된 論議 樣式을 통하여 정선 양반의 배고파 무능파 물략은 士의 가장 균원적 德行을 持續해 온 결과로 意味化되고 있다. 즉 外形的으로 볼 때 가장 兩班 작가이 있어보이는 정선양반이 실은 가장 균원적인 양반의 자격을 갖춘 양반으로 가치화되고 있다.

逆說의 論理에 立腳한 이와같은 價值化 方式은 이미 常識화되어 있고一般

29) 『馬駟傳』, p.115.

30) “, p.114.

31) “, p.122.

化되어 있는 판단기준에 대한 根本的인 懷疑를 바탕으로 한다. 그것은 事物의 根源的 屬性에 대한 판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常識과 外形을 超越하여 事物의 本質을 根源的으로 再認識하려는 創意의이고도 卓越한 文學精神의 所產이다.³²⁾ 그것은 内面 透視의 視覺이며 本源 確認의 知覺이다.

따라서 逆說的 論理에 의하여 具像化되고 있는 이를 作品이 表面化된 外行이나 虛名을 뒤어진 内在的 屬性으로 視覺을 돌리게 됨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嚴行首나 三狂, 凤山農夫, 旌善兩班, 易學大盜 등에 대하여 一次的으로 提起되는 逆說은 바로, 外的 判斷에서 상식적으로 제기된 命題에 대하여 제기되는, 예면 성찰에 입각한 反命題이다.

嚴行首의 外的 不潔에 대하여 제기된 内的 潔白, 三狂의 外的 毀損에 대하여 제기된 内的 完璧 및 君子之交의 信實한 듯 가장된 交態, 交面·交道에 대한 虛偽性의 제기, 旌善兩班의 外的 差異에서 導出한 内的 倫理保存 등이, 穢德先生傳'·'馬駢傳'·'兩班傳'의 作品論理임은 이미 확실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作品의 逆說的 視覺은 人間行爲의 外·內의 對立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本·末의 對立에도 돌려져 있다.

人間行爲의 外面이 顯現된 行爲 그 자체이고 内面이 心的 姿勢 즉 倫理意識이라고 할 때 어떠한 外行에 相應하는 根源的 基本倫理에 대한 追跡이 그것이다.

'穢德先生傳'에서는 取得의 基本倫理는 潔白과 守義임을 確認하였고 '馬駢傳'에서는 交際의 基本 倫理가 信임을 그리고 '兩班傳'에서는 上의 基本 倫理가 不謀勢利와 讀書임³³⁾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倫理들은 어디까지나 突極의인 것은 아닌 말하자면 最少基本價值의 것이다. 그러나 本源的·基本的인 것이고 本源임으로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길고 行爲와 유비되어지는 안되는 必要條件이다. 嚴行首나 三狂이나 旌善兩班의 倫理的 行爲가 個人的 潔白을 固守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것만은 결코 양보될 수 없는 본원적 차원의 윤리임을 명백히 한다. 윤

32) '答莫之'·'印譜記' p.92) '鏡北小選自序' (p.103) '藝洋詩集序' (p.105) '娘丸集序' (p.104) '新玩亭記' (p.62) '答任亭五論原道書' (p.35) 등에 이러한 文學觀이 단자으로 드러나 있다. 33) 穢德의 判議으로는 兩班의 突極의 所任은 純朴謹民에 있으므로 그 能力최득의手段인 讀書는 上에게 以어서는 倫理의 次元에 속할 정도로 突極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原上'《印譜記》 pp.138~141) 참조 할 것)

비단 윤리적으로對人關係에서論難되어질次元의 문제이다. 따라서 져극적이고 궁극적인倫理問題는他人과의관계에서거론되어져야할것이다.修身이 윤리적 차원의 기본이지만 그것은齋家,治國,平天下로 확산될 때 그窮極의 의미를 회득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문제에 관한한 기본 단계인 개인적 결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실현을 기대한다는 것은不可能이며 허위이다.

最少基本의定立이야말로最大窮極에 이르는捷徑임을 제시하자는것이 곧 인암의 의도이다. 이러한最少 가치의 basic的倫理條項에 대한 새삼스런確認은 가장basic의이고本質의인 윤리조차定立되어있지않은季世의 現狀에 대한反語이기도하다. “如嚴行首者豈非所謂穢其德而大隱於世者耶”나 “關拖愀然變乎色曰吾寧無友於世不能君子之交於是相與毀冠裂衣垢面蓬髮帶索而歌於市”나 旌善兩班의 극심한 궁핍과兩班喪失은 모두 가장basic의倫理만은 지버릴수없었던人物들의處世樣狀이다. 즉對社會의自我를隱蔽,毀損,喪失하지 않고서는倫理의自我를堅持할수없는極限狀況에서社會의自我를隱蔽·毀損·喪失함으로써最少基本의倫理의自我만은 지키고있는것이곧이들의모습이다. 따라서이들에대한칭송은 同時에이들이자해하는社會全盤이가장기본적이고근원적인윤리의식을 상실하고있는상황이라는反語이며보다窮極의次元의倫理問題에까지귀속되는물음이다. 윤리적自我를지킨인후에社會의自我를실현하는것이人間倫理의순서라면個人的次元의倫理가정립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對社會의職分 더욱이經世澤民의職位에나아간다는것은분명價値意識의顛倒이며悖倫·亡國의所行이다.

이들을最下流에處하게하면서價値를附與하여意味化한것또한反語이다. 가장친한方法의取得, 가장意識이混迷한者の認識, 가장불락한末端兩班에대한稱頌은이들을最下限線으로하는餘他의모든取得方法(職業), 모든認識水準, 모든職位에대하여倫理의自己反省을촉구하는反語의물음인것이다. 그것은作者의主張의適用범위를最大限으로擴散하고主張의强度를極大화하기위하여意圖적으로설정된位置인것이다.³⁴⁾

34) 热河日記 駕汎隨筆 秋七月十五日에서 中國의莊觀은 瓦礫廢塊와한것도同一한看法이다. (인암집) p.172 참조.

最下의 水準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倫理라면 그 以上의 어느 水準에서나 지켜질 수 있는 倫理이며 最下의 位置로 자신을 전락시키면서까지 지키야 했던 윤리라면 至上命題로서의 倫理이며 가장 根源的인 倫理이다. (이것이 飾名節의 真意이다) 동시에 最下流의 것에조차 그 倫理性 如何에 따라서 價值와 意味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면 餘他의 모든 것은 그 正常한 倫理性을 回復할 때 그 이상의 가치 와意味가 부여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嚴行首나 宋旭·趙闊地·張德弘, 凱山農夫등은 ‘이미 양반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진 인간적 미덕들이 여형의 이름없는 서민들에게는 남아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과의 교우에서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는, 서민의 가치—오히려 양반의 귀감이 될 수 있는—발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인물들이 아니다.³⁵⁾

그들은, 四民중 그 누구보다도 倫理意識이 투철히 定立되어 있어야 할 上階級이 가장 基本的인 倫理意識조차도 지니고 있지 않음을 逆說的으로 증거함으로써 의 全盤에 倫理的 再定立을 추구하기 위하여 反語的으로 설정 된 人物들이다.

서민이 오히려 양반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민 一般의 價值表象으로 이들을 부각시키고자 했다면 구태여 ‘傳’ 양식을 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嚴行首를 ‘大隱於世者’로 三狂을 ‘遯世流離하는 狂人으로 규정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의 작품이 그렇게 글재적, 회학적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傳’이라는 양식 속의 人物로 해석됨으로하여 이들은 이미 凡常할 수도 典型的일 수도 普遍的일 수도 없도록 意味化되거나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인다.³⁶⁾ 이들은 긍정적 측면으로 부각되면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되던 간에 이미 좀처럼 발견될 수 없는 非凡人으로 의미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典型的 役夫 속에서는 도저히 찾아질 수 없는 役夫이며 平凡한 農夫들 속에서는 도히 찾을 수 없는 農夫이고 거지 가운데 결대로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리므로 狂人으로 되어야 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이 所有하고 있는 品性은 常識的으로는 그들의 身分과 처지에 합당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기에 이

35) 金明昊, 〈韓文學과 史記〉前揭書 pp.335~337. 및 기타 諸先學의 많은 既存論議에서 이와 같은 見解들이 파악되었음.

36) ‘馬飄傳’에서 宋旭·張德弘·趙闊地는 立傳 對象 人物들이 아니라 그들의 論議對象인 馬飄 類의 君子들과 重으로正面 對峙되어 있는 人物들임으로 反語的으로 예찬되고 있는 人物들이다.

들이 천양의 대상으로 부각된 것인데 燕岩은 그들의 그리한 品性은 원래 ‘土’의 분례의 面貌였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其士也 翳居達於面目恥也 既得志也施於四體恥也 其視嚴行首 有不狃怩者幾希矣” : 「礪德先生傳」

“宋旭闡抱乞食於道 德弘狂歌於市 猶不爲馬駟之術 而况君子而讀書者乎” : 「馬駟傳」

그리므로 이들은 ‘傳’ 樣式 속에 受容하여 稱頌하고 있는 근본 의도는 이들 자신을 讚揚하고 記錄 保存하자는 것이 아니다. 倫理觀이 그 基底에서부터 動搖되어 있고 價値觀의 本末이顛倒되어 있는 土階級의 精神的 危機를 警告하고 그 原狀 回復을 촉구하려는 것으로서³⁷⁾ 稱頌을 통하여 警戒하는 反語의 技法이다.

따라서 그것은 稱頌임에도 불구하고 季世의 現狀에 대한 危機意識 즉 不安과 절망을 内包하고 있으며 그칭송은 결국 嚴行首·三狂·旌善兩班을 最下限線으로 하는 그 以上的 모든 人間群에 대한 價値를 긍정하고 그 倫理性를 回復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

逆說은 論議되고 있는 對象 自體가 外見上, 同時に 참이며 거짓인 二律背反의in 두 命題를 兩立시킬 수 있는 相反毛 素地를 内包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역설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그 어느 한 속성으로 귀일릴 수 없는 二重性을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어느 한 속성으로 귀일시키고자 할 때는 편언적으로 不完全性(不充分性)을 드러낸다. 따라서 逆說에 依存하고 있는 ‘礪德先生傳’ ‘兩班傳’ ‘馬駟傳’은 모든 것이 그 完全性을 상실하고 있는 狀況에 대한 절망의 반영인 동시에 그것을 원래대로 환원하려는 욕구의 반영이기도하다.

이른바 ‘禮失求野’의 逆說的 狀況認識에서 意味化된 人物들이 곧 嚴行首요 三狂이며 凤山農夫요 旌善兩班이다.

漢族이 망하고 난 후 그 文化的 正統이던 복색은 演戲場의 웃음거리로 흥민 복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우리나라 婦人の 아름답던 옛복색도 고려 말 胡制로 바뀌면서 사대부들이 모두 방정맞고 창피한 이 복색을 따르니 세

37) 作家의 이와 같은 意謂는 放矯闡外傳 自序 兩班傳 저술 당시에 이미 明示되어 있다.

월이 흐름에 따라 소멸되어버려 이제는 列邑 妓服에서나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듯이, 士大夫는 어려서는 글을 읽으나 자라면 과거를 위한 駢靄文이나 익히다가 급제하고 나면 머리가 허애질 때까지 古文이 있는 줄도 까마득히 모르는데, 오히려 譯官인 李弘載는 古文을 익혀 一家에 이르렀으니, 中原의 遺制를 보려면 戲子에게서 求한 수 밖에 없고, 女服의 古雅함을 보려면 邑妓에게서 보아야 만하고, 文章의 용성함을 알려니 참으로 慢象의 賤士가 부끄럽다는 데서 드러나는 이 禮失求野의 의미³⁸⁾는 그 基底에 古雅하고 가치있는 것들이 정작 있어야 할 정당한 곳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그 遺痕으로만 발견되는 季世의 현상에 대한 悲憤과 사물의 價値와 位置가 頽倒되어 있음을 목도하는概歎, 그리고 消滅된 理想像에 대한 강한憧憬을 内包하고 있다. ‘禮失求野’의 意識의 촛점은 사라진 禮가 野에서 구해진다는 野에 대한 감탄에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禮失’에 대한 개탄에 있다. 그가 접착하는 것은 野에 남아 있는 殘痕이 아니라 그 殘痕을 통해서 窺知할 수 있는 売失된 古雅性的의 原型 회복이며 理念回復이다. 残痕인 野의 價値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설정된 소재는 근본적으로 二律背反性을 내포하고 있다.

戲場의 古制나 邑妓의 服色, 譯官의 古文은, 正統의 古制나 古服이나 古文이 사라져 버린 季世的 狀況에서 오직 唯一하게 正統의 原型을 想像할 수 있게 해주는 배개체라는 의미에서는 절대적으로 공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正統의 原型 그 자체가 아닌 축약된 殘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否定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그러한 古制나 古服이나 古文에 대하여 단순히 나타난 現像으로서의 外形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享有者 자신이 어떤 理念의이고 精神의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라면 그것을 享有하는 主體가 그 外形속에 内在한 精神과 理念 그리고 그것의 表象化 原理에 대한 근본적인 自覺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享有일 수 없고 다만 그 虛像인 外形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그 原型을 保存시킬 수도 발견시킬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内面性을 상실한 外形은 마땅히 부정될 수 밖에 없다.

38) 〈自笑集序〉 참조 (《연암집》 pp.59~60)

旌善兩班의 無目的的인 독서 행위나 속수무책의 無能의 意味가 그자체로서는 解明될 수 없고 第二文卷이 제시하고 있는, 누가 보아도 틀림없는 惡士의 實像과 對比됨으로서만 絶對 潔白의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나 엄행수의 外行이 蟬橘子의 解明을 기다려 비로소 理念的 倫理價値를 획득하는 것이나 宋旭이 狂人으로 설정되어 이미 그의 論議가 正常性을 虧失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嚴行首나 旌善兩班이나 宋旭이 그들 自體로서 公明正大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獨自的이고 正常한 價値를 保有하고 있는 上體的 實像이 아니라 實體를 感知할 수 있게 해 주는 虛像일 뿐임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들을 意味化 할 수 있는 主體的 實像에 의지해서만 表象化될 수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召命이나(旌善兩班) 자신의 行위의 의미(嚴行首)나 자신의 言論에(旭宋) 대하여 無自覺의이라는 점은³⁹⁾ 그들이 精神的 理念的 内面을 保有하지 못한 理念의 껌질인 外形만을 지니고 있을 뿐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더구나 작가가 이들의 行爲나 言及을 통하여 문제삼고 있는 것이 人間倫理(특히 士의 倫理)의 차원임이 분명함을 시인한다면 倫理意識이 内在되지 않았거나 正常이 아닌 정신상태로 表出되고 있는 外行이 결코 그 자체로서 온전한 倫理的 行爲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나 意識이 内在한 倫理的 行爲는 커녕 無意識의 慣習의 外行만의 倫理의 行爲조차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 실정이라면, 그것은 不完全한 餘痕에 지나지 않는다 한지라도 그 상황에서는 最大的 가치로서 친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껌질뿐인 外行의 内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결국 倫理의 行爲의 完全像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일 뿐일 것이므로 동시에 그것이 不完全, 不充分이며 假와 虛로 苦笑될 수 밖에 없는 二律背反性을 피할 수 있게 된다.

旌善兩班이나 三狂이나 嚴行首의 行위는 그들 자신의 倫理意識이 介在되어 있지 않거나 正常性을 虧失한 상태의 意識이므로 실상은 潔白이기보다는 無能, 超脫이기보다는 狂, 安分守義이기보다는 能力의 限界로 해석되어야 한素地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그들 스스로 意識 内面을 노출하지 않는 한 觀

39) '馬祖傳'에서 宋旭의 狂態는 遷世游離하기 위한 意願의 自己隱蔽로 해명되고 있으나 狂宋旭의 發狂의 原因은 燕岩에 의하여 해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는 狂에 대한 燕岩의 反語의 해석으로 보인다. (同一한 칙상이 金齋記(《현암집》 p.108)에도 나타난다)

點에 따라서는 無能이 潔白으로 狂이 超脫로 能力의 限界가 安分守義로 해석될 素地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一定한 命題로 斷定될 수 없는 二重性과 兩面性을 지닌 對象들이다.

‘穢德先生傳’은 염행수의 이러한 二重的, 兩面的 素地가 子牧과 蟬橘子의對話로서 文面에 선명하게 表出되어 있고 ‘馬駒傳’에서는 三狂이 ‘狂’이라는既定事實이 이미 하나의 命題로 提起된 것이므로 작품의 文面에는 三狂의狂態는 ‘狂態 속에 자신을 은둔시킨 超脫의 모습’이라는 反命題만을 제기했고 ‘兩班傳’의 경우에는 아내의 言及을 통하여 ‘무능’이라는 해석을, 제2문권과의 대조를 통하여 ‘결魄’이라는 해석을, 암시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兩面的 二重的 속성을 어느 一面的 觀點으로 귀속시키려할 때 이들은 菲廉적으로 不完全性, 不充分性을 드러내는 결손된 價値量을 지니게 된다.

旌善兩班이나 三狂이나 嚴行首는 결국 最少基準值의 值價에 最大值價가附與된 人物이며, 不完全, 不充分한 虛像을 完全, 充分한 實像으로 변조시켜 形象化된 人物들이다. 이러한 작업에서 菲廉적으로 援用될 수 밖에 없는 文學的 技法이 逆說, 反語, 골짜이의 그 記述方式도 보편적인 傳의 記述方式에서 離脫 變異될 수 밖에 없다. 不完全을 完全으로 最少價值를 最大 價値로 意味化할 수 밖에 없는 狀況은 完全과 最少量 以上의 價値는 이미 도저히 기대할 수 없이 衰失되고 만질방적 상황임을 의미 한다.

4. 燕岩의 土意識과 旌善兩班

燕岩이 ‘兩班傳’에서 土의 基本像으로서 旌善兩班을 제시함으로써 七의姿勢定立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原土’⁴⁰⁾라는 글을 통하여 그의 土意識을 추적해 볼수로써 더욱 분명해 진다.

이에 의하면 上는 아래로는 農工과 列지으며 위로는 王公을 띠하는데 직위는 없다⁴¹⁾하였다. ‘아래로 農工과 列지는다(下列農工)’는 것은 上는 ‘上·農·工·商’四民의 하나임을 지칭한 것이다. 이는 民에 대한 東洋의 전통적 인식 방법이다. 四民이란 民을 그 業에 따라 네 종류로 구분한 평등한

40) 『原土』 pp. 138~141.

41) “夫士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原土’ 『原土』 p. 139)

것일 뿐 그것이 계급은 결코 아니다.

학문을 담아 벼슬하는 業에 종사하는 부류가 곧 士이므로 벼슬을 했던 하지 않았던 그 일을 目的하는 부류는 모두 上이다. 혼히 벼슬하지 않은 가난한 儒生을 士라 하지만 士란 四民을 구분하는 名稱일 뿐이므로 원래는 天子로부터 庶人(벼슬하지 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上이다. 마치 바탕에 五彩로 바탕의 이곳저곳을 칠한 뒤에 白色을 덧칠하여 음영을 색으로써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 바탕에 속하는 五彩가 上라면 庶人에서부터 天子에 이르는爵位는 음영을 넣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加해진 白色과 같은 것이다.⁴²⁾

그리므로 벼슬에 높고 낮음은 있을지언정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니며 직위의 귀천이 있을지언정 ‘上’라는 신분이 바뀌어 옮겨진 것이 아니다. 즉 爵位가 上에게 加해진 것이지 士가 爵位로 옮겨진 것은 아니라⁴³⁾는 것이다.

‘兩班傳’本文中에 “維天生民 其民維四”, “兩班者 上族之尊稱也” “維厥兩班名謂多端 讀書曰上 從政大夫 有德爲君子 武隋列西 文秩叙東是爲兩班” 등의 문句는 모두 上의 身分에 대한 이와같은認識을 기반으로叙述된 것이다.

한편 上는 人間의 法統이며⁴⁴⁾ 人間을 살리는 바탕이라⁴⁵⁾고 한다.

하늘이 四民을 냈다고 한다면 그 四民을 살리는 근본이되고 그 四民의 法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四民을 데어 살게하는 하늘의 일을 대신하는 것 이된다. 이것이 ‘放矯闇外傳’自序에 “上乃天爵”的 의미이며 그때문에 四民은 同列이지만 그 四民을 살리는 근본(生人之本)이 되는 上는 四民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四民之中 最貴者上”—‘兩班傳’本文 中).

上과 ‘人之統’이 되고 ‘生人之本’이 될 수 있는 것은 孝悌忠信의 行為과 禮樂刑政의 실행을 통해서인데 특서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특서하지 않고 행하는 孝悌忠信은 모두 사사로운 치세로 친략한 것이며 특서하지 않고는 橫略와 經綸의 개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모두 주연구구이기 때문이다.⁴⁶⁾

42) “上非芻蕪之別號，譬如繪事而後素 則自天子達於庶人皆上也”(《答蒼匪》《현암집》 p.93)

43) “臣有高下 身非變化也 位有貴賤 士非轉徒也 故爵位加於士 非士遷而爵位也”(‘原士’《现암집》 p.139)

44) “上者人之統也”(同上)

45) “原士者生人之本也”(同上)

46) 현암집 p.139. 上段 左半 및 下段 右半 略述.

그리므로 燕岩이 이르는바 본질적으로 올바른 선비(雅士)란 뜻(志)은 갓난아이 같고 모습은 처녀같아서 終年不離 문을 견어 닫고 들판하는 사람을 말한다. 갓난아이는 비록 약하지만 그 뜻은 오롯하며 처녀가 비록 졸(拙)하지만 그 지침은 확고하기 때문이다. 우월에 하늘에 부끄럼지 않고 굽어 人間에 부끄럼지 않은 것은 바로 오직 문 열어 닫고 책읽는 것이다.⁴⁷⁾

독서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私私로운 뜻이다. 私私로운 뜻을 가지 고는 세월이 다하도록 독서해도 啓問이 나아가지 않는다. 百家의 書를 드나들고 經傳을 故據하여, 배운 것을 시험하려 하고 功과 利益에 굽굽하여 사사로운 뜻을 이겨내지 못하면 독서가 그문 해할 뿐이다.⁴⁸⁾

진정한 선비는 기니가 없을 만큼 가난해도 독서를 즐긴다.⁴⁹⁾ 아니 가난한 사람이 독서를 즐기지 부자는 독서를 즐기지 않는다.⁵⁰⁾ 君子가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그만두어서는 안될 것은 오직 독서이다.⁵¹⁾

‘原上’에서 드러나는 이와같은 燕岩의 士意識과 讀書觀에 비추어 볼 때 旌藩兩班의 속수무책으로 나야하고 출렬한 現實對應方法이며 지속적이고 無目的의이며 한 품 이차 가치도 없는 듯한 讀書行爲는 바로 原上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선비(雅士)의 行爲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선양반의 지독한 무능력은 오히려 士의 순결을 역설적으로 그려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게 오래 세월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이익을 위한 아무 대책도 없이 문 열어 닫고 오직 책만 읽는 것이 雅士라고 보는 것은 결국 ‘人之統’ 이외고 ‘生人之本’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운 길인가를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선비의 독서가 궁극에는 온세상에 혜택을 미치고 만년 뒤에까지 공서울 드리우며 天下를 文明하게 하자면⁵²⁾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을 감내해야하고 그 외

47) “君所謂雅士者 志如嬰兒 貌若處子 終年閉其戶而讀書也 婴兒雖弱 其慕專也 處子雖拙 其守確也 仰不愧天 俯不怍人 其惟閉戶而讀書乎”(同上)

48) “讀書而求有爲者 皆私意也 終歲讀書 而學不進者 私意害之也 出入百家 丐據經傳 欲試其所學 急於功利 不勝其私意 讀書害之也”(同上)

49) “或問曰 顏子歷空 不改其樂 顏路空時 猶復樂乎 仁有可以貢米者 不遠百里 使妻炊飯 上堂讀書”(同上)

50) 旣聞家貧好讀書 未聞家富而好讀書者

51) “君子終其身 不可一日而廢者 其惟讀書乎”(同上 p.140.)

52) “一士讀書 深及四海 功垂萬世 易曰見龍在田 天下文明 其謂讀書之士乎”

고 하고 專一한 뜻으로 하여 오히려 나약하고 졸렬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旌藩兩班의 行爲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簡樸的인 上의 行道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즉 上의 基礎를 닦는 모습이다. 결국 燕岩의 上意識에 비추어 보아도 旌藩兩班은 언암이 上의 基本像으로 부각시켜 肯定하고자 한 人物임이 분명하다.

흔히 旌藩兩班의 讀書는 徒讀이고 僞學이라하고 許生은 學問之道를 아는眞士로서 經世澤民할 능력이 있는 者라고 하지만 許生의 능력은 결국 讀書를 통해 획득된 것이고 그러한 능력을 획득하기까지에는 旌藩兩班과 똑같은 과정을 걸었으리라 생각된다. 許生은 10년을 작성하고 독서에 임하기 以前에도 수없는 세월을 독서로 보냈으리라 여겨지는데 10년을 기약한 독서가 許生 나름대로 主觀이 정립된 상황이라면 그러한 主觀이 정립되기 以前에 旌藩兩班처럼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行爲에 대한 뚜렷한 자각이 없는 상태로 계속된 독서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어느 시기이고 간에 客觀의in 제3자의 눈에 비친 허생의 모습은 정신양반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記生의 아내의 비난이 이를 증거 한다.) 허생이 하루 아침에 떨치고 일어나 조금 시험해 본 것(小試)으로써 全朝鮮의 유통구조를 마비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학문(독서)적 바탕에 의해서만 經世澤民이 가능하다는 ‘原上’의 上觀을 그대로 작품으로 具體화한 것이다.

그러한 능력이 획득되기까지에는 그야말로 終年도록 지속되는, 일찌 보아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맹목적인 듯이 보이는 독서가 요구된다. 자신의 기약한 終年을 채우지 못하고 私意로서 조금 시험해 본 허생이 또다시 독서하는 以前의 가난한 상황으로 되돌아 가는 것은 上에게 있어서 독서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旌藩兩班이 아직 上意識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慣習의으로 上道를 실행하고 있는 人物이라면 訸生은 스스로 투철한 上意識을 정립해 가지고 上道를 수행하고자하는 人物이다.

그런데 上로서의 自己修行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 것은 두 인물이 결국 마찬가지이다. 旌藩兩班은 上로서의 社會의 직분에 대한 뚜렷한 認識조차 가지지 못한 단계에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위기에 물려 兩班을 팔았고 訸生

은 뚜렷한 上意識을 가지고 작성한 바 있어 10년을 계획했던 독서를 역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작성한 일한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 파기하였다.

燕岩은 ‘原上’에서 자기가 말하는 진정한 선비는 ‘終年閉其戶而讀書也’라고 하였다. 終年이란 그사람 나름대로 한정한 헛수를 마치도록이란 의미인데 ‘原上’의 文脈에서 추출되는 바로는 人間사회의 윤리를 정립하고 禮樂刑政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天下를 文明하게 하여 澤及四海하고 功垂萬歲 할 수 있는 실질적, 구체적 方案이 독서를 통하여 정립될 때까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도 죽을 때까지 폐해서는 안되는 것이 士의 讀書 行爲이다. 따라서 原上의 論理에 따른다면 讀書行爲를 中斷한 士는 이미 上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므로 정선 양반이나 혁생의 平生을 一貫한 讀書 行爲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原因이야말로 士道를 병들게 만드는 要因이다.

그들이 讀書를 中斷하게 되는 것은 食生活을 해결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양반의 경우 빌어 먹은 환곡미가 친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文脈으로 보아 그가 무능력해서(計不知所出)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鄉班으로서 횡포를 자행하거나 약삭빠르게 科舉를 위한 文史나 섭렵하여 벼슬하는 방법이 외에는 근근이나마 생계를 유지하면서라도 士의 正道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될 정도에 이르기까지 독서를 계속할 수 있는 正當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정신양반이 計不知所出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그의 어진 성품으로는 신분을 이용한 횡포를 자행할 수가 없었고 정당한 방도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반전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第二文卷을 介在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을 뿐이지만 ‘許生’의 경우에는 아내와의 問答 가운데 직접 노출되어 있다. 장이가 되자니 평소에 익힌 기술이 없고 장사를 하자니 밀천이 없다. 그렇다고 도둑이 될 수는 없다. 환곡대여의 方法이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임은 作品論理로 보아 너부도 당연하다.

‘原上’과 ‘許生’을 통하여 확인되는 바로는 上의 지속적인 올바른 독서를 통해서만 國家는 바로 다스려지고 安定될 수 있다.⁵³⁾ 이러한 일암의 의식을 ‘양반전’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면 ‘양반전’은 무엇보다도 士가 士답게 살수

53) ‘原上’의 마지막 文章은 “使天下之人安坐而讀書天下無事矣”이다.

있는 여건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당대 사회의 제도적 모순점은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粗涉文史만으로 統治構造의 權座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人才登用의 方法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真士아닌 士가 집권하고 있는 한 士의 正道를 차실히 뺏아 真士로 성장할 수 있는 정선양반과 같은 人物은 투철한 士의식과 上로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真士로 成長하기도 전에 도태되고 말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양반전’을 통해 문제삼고 있는 當代의 實情이다. 그러나 作者는 文卷을 통하여 上 모두가 私利追求를 떠나 希古尚志하고 独서에 전념하며 士다운 행실을 실천해야 한다는 판념적이고 막연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앞서도 言及했거나와 ‘양반전’의 관심이 현실 타개의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제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이고 理念的인 上의 本源 탐색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傳’이라는 양식적 특성에 구애받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IV. 郡守의 作中 位相과 作家意識

‘兩班傳’에서 郡守의 作品 内의 性格 및 意味에 대하여도 몇 가지 對立된 見解들이 出현되어 왔다.

本稿에서는 앞서 言及한 바 있는 ‘穢德先生傳’ ‘馬駢傳’ ‘兩班傳’의 人物設定方式 몇 그 價值化方式이 逆說과 反語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兩班傳’에서의 郡守의 의미를 추출하고 그 타당성을 作品 文脈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穢德先生傳’ ‘馬駢傳’ ‘兩班傳’은 일반적인 傳과는 그 기술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일반적인 傳의 기술방식은 本傳 人物의 言行 및 그에 대한 作家의 論議가 作家의 적집기술로 시술되어 있는데 비해 ‘穢德先生傳’에서는 嚴行首의 行爲와 그에 대한 論議가 作中 人物인 子牧과 蟬橘子의 言說속에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嚴行首는 作中 人物로서의 實在性을 가지고 存在하지 않는다(이는 說의 方式을 採用하여 ‘傳’을 技術하고 있는 것이다). ‘馬駢傳’에서도 立傳對象인 馬駢類의 人間群들의 行爲와 그에 대한 作

의는 역시 作中 實在 人物인 趙關拖·張德弘·宋旭 등의 言說속에 間接 記述되어 있다(이는 ‘說’과 ‘論’의 方式을 採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兩班傳’에서는 旌善兩班·관찰사·아내·군수·富人등이 作中 實在 人物로 記述되면서 旌善兩班의 行爲는 作家의 直接 記述과 文卷을 통한 간접 기술로 兩立되어 있고 그 行爲에 대한 論議는 아내의 言說에 간접 기술되어 있고 第二文卷과의 대비 속에 암시적으로 은폐되어 있다. 한편 兩班一般의 行爲는 第一文卷과 第二文卷(郡守의 言說에 해당함)에 간접 기술되어 있고 그 論議는 富人の 言說에 간접 기술되어 있다.

旌善兩班이나 嚴行首나 馬駢類의 君子들의 行爲에 대한 論議를 作家의 直接記述에 의거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거의 虛構的 人物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아울러 逆說的으로 價值化되고 있는 人物이기 때문일 것이다. 逆說的 狀況에 있는 人物에게 작가 자신이 斷定的인 論議를 附加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다. 對象 自體가 二律背反의이고 二元的일 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論議의 方式은 論議를 客觀속에 放置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작품이 作中 人物들의 對立된 言說속에 論議를 맡겨 讀者 스스로의 判斷에 유보시켜 둔 것은 보다 세련된 방법적 배려라 할 수 있다.

‘穢德先生傳’에서 子牧은 嚴行首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否定的 命題를 제기하는 人物이다. 그의 觀點은 外見과 常識의 次元에 있다. 蟬橘子는 子牧에 의하여 제기된 否定的 命題를 逆說로 전복시키는데 그의 觀點은 內面 透視와 本源 質問에 있다. 그리고先行된 友情論의 改進에 있어 子牧이 蟬橘子에게 일단 承服한 이후에 蟬橘子의 嚴行首에 대한 해석이 끄려져므로 蟬橘子가 強勢를 획득하면서 그의 觀點은 곧 作者의 觀點으로 置換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다.

‘馬駢傳’에서는 趙關拖에 의하여 利益을 초월한 사귐의 態度(交態)가 궁정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하여 張德弘과 宋旭이 그 交態의 内心을 폭로함으로써 君子之交의 不信性이 否定的으로 제기되면서 關拖가 宋旭에게 承服함으로써 宋旭의 觀點이 作家의 觀點일 수 있음이 밝혀진다. 좀더 은폐되어 있기는 하지만 ‘命題 提起→反論→逆說의 成立’ 構造는 ‘兩班傳’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인다.

‘兩班傳’의 경우 일차적으로 提起된 형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旌善兩

班의 아내에 의하여 旌善兩班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旌善兩班은 한푼이 치 가치도 없는 無能力者이다’이다. 다른 하나는 富人에 의하여 兩班一般에 대해 提起된 命題로 ‘양반은 비록가난할지라도 언제나 尊榮하다’이다.

蟬橘子의 反語的 誘導에 의해 子牧이 애초에 스스로 제기한 命題를 破棄하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고 張德弘과 宋旭의 誘導的 言說에 의하여 趙闔拖 스스로 처음에肯定的으로 提示한 交態를 否定的으로 認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旌善富人은 郡守가 提示한 두개의 文卷에 의하여 ‘雖貧常尊榮’이라는 애초의 판단을 버리고 ‘太乾沒’ ‘盜’라는 거의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여 羨望과 希求를 버리고 ‘終身不復言兩班之事’하게 된다.

旌善兩班에 대한 아내의 판단은同一한 방식으로 전복되고 있지는 않지만 第二文卷이 제기됨으로하여 ‘絕對潔白’의 意味로 反轉되고 있음은 이미 上及한 바 있다.

‘兩班傳’은 다른 두 作品에 비하여 훨씬 은폐적이기는 하지만同一한 技法同一한 意識에 의하여 形象化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郡守는 결국 蟬橘子나 宋旭과同一한 作中位相을 가지는 人物임이 확인된다. (‘兩班傳’의 이외 같은 은폐성은 時諱에 지나차게 저촉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蟬橘子’에 대한 作家의 의식은 蟬橘子自身이 嚴行首의 行爲를 意味化하고 價値化하는 過程에서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바 ‘상식의 外皮 깊숙히 內在한事物의 真相’을 볼 수 있는 慧眼의 所持者이다. 또 “世之名士大夫願從足下遊下風者多矣”라고 한 子牧의 말로보아 그의 이름이 상정하고 있듯이 군자로운 헉망과 매미소리처럼 오란한 명성을 드날리고 있는 出群之士이다.

燕岩의 ‘蟬橘堂記’⁵⁴⁾에 의하면 蟬橘은 일차적으로 높은 향기와 오란한 소리의 의미를 가지며 그것을 한단계 넘어서 때 매미의 날자와 마른 꿀껍질의 빙구멍의 의미를 갖게 되어 ‘脫皮’와 ‘虛心’을 의미한다.

‘宋旭’은 그야말로 狂人이므로 常識을 벗어난 人物이다. (‘自序’에서는 狂人인 양 ‘遜世流離’하는 人物로 규정하고 있다.) 宋旭의 이야기는 ‘念齋記’⁵⁵⁾에도 보이는 데 이에 의하면 그는 뱀가벗고 미쳐 달아난 자기 자신을 찾아 다니는

54) 《연암집》 p.109.

55) 《연암집》 p.108.

狂人으로 과거에 금세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매번 과거에 응시하는 人物이다. 결국 實在하는 자기 자신 및 現實的 次元의 執念을 탈피한 정신적 상황이 ‘狂’으로 나타나고 있는 人物이라는 것이 연암의 해석이다.

‘蟬橘子’와 ‘宋旭’은 결국 모두가 常識과 私의 차원을 벗어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空虛하게 미워 놓고 있는 人物이다. 이러한 상대라야 비로소 事物의 眞狀이 있는 그대로 公正하게 마음에 비쳐들어 眞實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⁵⁶⁾

연암은 자신의 論議를 이들의 言說로 대치, 客觀化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絶大公正한 眞實인가를 寓意的으로 강조하면서 ‘傳’이라는 事實記錄 樣式을 構造的으로 虛構化하고 있다.

‘兩班傳’에서의 郡守도 결국 같은 의식하에 設定되고 있는 人物이다. 다음과 같은 文脈으로 보아 郡守가 文卷을 作成한 것은 이 매매 件에 公信力を 부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私自交易而不立卷訟之端也 我與汝約郡人而證之立卷而信之郡守當自署之

결국 이 文脈은 郡守가 公信力의 執行人 입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原上’을 참고하면 더욱 확실해 진다.

執法曰上獨之也 所以示公於天下

法을 집행하는 자를 上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자는 것이니 天下에 公正를 보이는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兩班傳’에서 郡守는 사건을 法的으로 처리하고 있는 人物 즉 執法之士이다.

결국 郡守도 ‘蟬橘子’나 ‘宋旭’처럼 ‘公平無私’ ‘絕對公正’의 의미를 지닌 存在로서 연암이 자신의 손의에 보다 확실한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技法的으로 設定한 人物이다.

따라서 작가의 의식으로는 그의 말은 그대로 公言이요 그의 행동은 마땅히 그래야하는 正當한 行動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郡守에 의해 작성된 文卷은 그것이 法的 효력을 갖는 公公文이므로해서 더욱 확고 부동한 公言이 된다. 作品結構上兩班의 行爲 노정이 文卷속에 들어가 있어 郡守가 거기에

56) “素玩亭記”参照, 《연암집》pp. 62~63)

論議를 칠부할 수도 없지만 그리한 반상자체도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가장公正한論議는事實이나 상황 그 자체를客觀的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郡守가 아무리公의상정이라 하지만 일단 그에 의하여 무엇이라고判定되어 지면 그것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者(讀者) 자신에게 환경을 맡기는 것 보다는 분명히公正하다.

즉 ‘穀德先生傳’이나 ‘馬駢傳’에서作家의論議를自身의直接기술 형태로자술하지 않고作中人物의論議로置換함으로써客觀性公正性을회복하려고 했다면 ‘兩班傳’에서는作中人物의論議조차도 배제함으로써 더욱公正性을회복하려 했다고 보인다.

사실 ‘兩班傳’내에서郡守의言行은 하나도公正하지 않은 것이 없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 권력도 없는庶人이지만 賢而好讀書하는士를 찾아보고禮遇하였고 환곡을 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간하게 된 양반을 애처롭게 생각하여 차마 가두지 못했다.

의롭고 어질고 거해로운 자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라고 말했다.

사사로이 양반을 사고 팔아公文化 하지 않으면 송사의 단서가 되므로立卷의 절차를 밟되專斷하지 않고郡人们이 증거하게 했다.

비록 사적인交易이었으나 이미 배배가 이루어 졌으므로 양반을 산富人을鄉所의石에 양반을 판兩班을公兄之下에 서게 했다.

文卷을 세우고 그文卷의 내용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官에와下正하게 했다.

富인이 이를도록 고쳐달라고 하자 요구대로文卷을 고쳐주었다.

문제의 종잡을 초래할 것임에도 한가지 확인할 사실은一次文卷의 마지막

凡此百行有違兩班持此文記下正下首

에 대한 해석이다.

이는 ‘양반을 판 정선 양반이, 양반을 산富인이一次文卷에 나열하고 있는兩班行爲의 조목을 여기에 될경우, 그 사실을官家에 와지적하고下正할 수 있다는 뜻’으로旌善兩班에게兩班權을 빼돌려 주기위하여富人으로서는 실행할 수도 없는 까나로운 조목을 열거하고 게다가 정선양반에게

富人이 양반의 행실을 이겼을 때 그것을 판에 고발, 양반권을 되찾을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여 富人이 스스로 양반권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郡守의 고의적 機知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⁵⁷⁾ 郡守를 Triker⁵⁸⁾, 兩班權을 守護한, 機知를 가진 명민한 兩班⁵⁹⁾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文脈으로 볼 때 이는 상당한 오해라고 생각된다. 이 文卷은 旌善兩班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고 富人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文卷 序頭에

乾隆十年九月日 右明文段 所賣兩班 爲償官穀 其直千斛 維厥兩班 名謂多端讀書
曰士：從政爲大夫 有德爲君子 武階列西 文秩叙東 是爲兩班 任爾所從(방침별자)

이라 하였는데

‘任爾所從’(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너에게 맡긴다)에서 爾는 兩班을 산 富人이지 旌善兩班일 수가 없다. 富人은 아직까지 兩班이어 본 적이 없어서 兩班의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겠으므로 양반의 종류를 안내해 주고 士가 되든, 大夫, 君子, 武班, 文班이 되든 이는 모두 틀림없이 兩班이니 그 중에서 마음대로 택하라는 뜻이다. 旌善兩班이 양반을 사는 것이 아니니 그에게 ‘任爾所從’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매매행위에서 그 권리증서는 산 사람이 가지는 것 이지 판 사람이 가질 수 없다. 富人이 가지게 될 이 文書를 정선양반이 어떻게 官으로 가지고가 卞正할 수 있다는 것인가.

따라서 이 文卷의 마지막 文章은, 이 첫머리에 이어 열거된 諸般 行爲들이 혹 ‘兩班의 行實에 違背되는 점이 있으면 즉 兩班다운 行爲일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으면 판가에 와서 그 조목을 고쳐도 좋다’는 것이며, 이 文卷에記載된 諸般行爲들은 조금도 兩班의 行實로서 어긋남이 없는 것들로서 士든 君子든 大夫, 文官, 武官이든 이와같이 행동하면 틀림없는 양반이 됨을 명백히 한 것이다. 즉 이 法文의 公信性을 결론적으로 확고히 證示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7) 黃潤江·朴箕錫·李源周·閔丙秀 등, 이 분들은 이 문장을 「凡此百行有違兩班持此文記 卞正于宮」으로 읽기로 하고 「凡此百行 有違兩班 持此文記 卞正于宮」으로 읽기로 하였다.

58) 황재강, 前揭論文

朴箕錫, 前揭書

59) 李源周, 前揭書

郡守는 富人이 양반을 사겠다고 하므로 양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그에게 양반이 될 수 있는 方法을 구체적으로 明示해 주었다. 日常 生活에서 德과 行實을 양반답게 가지고 행할 때 바로 兩班이 될다는 것을 세세하고 자질구비한 評行까지 열거하여 알려 주었다.

一次文卷이 觀念의이고 理念의이며 窮極의인 兩班의 偉業을 記述한 것이 아니고 수히 微細한 日常의 評行에 관한 指針이라는 點은 이미 評及한 바 ‘兩班傳’의 製作 目的이 가장 基本의이고 根源의인 上道의 定立에 있었기 때문이다.

上를 무엇보다도 士에게 하는 조건은 平凡한 日常 生活에서부터 上:마운 評行을 實行하는 데 있는 것이지 日常的 修身을 도와서 한 飛躍의이고 超越의 優 藝에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原上의 다음과 같은 文脈에도 이 점은 화살사 떠어있다.

天既明 畢盥漱 卽至父母之寢所 煙於戶外 或聞嘔咳嗽 或聞睡欠 入而問寢 父母與之語 或使之事 不忙歸 不辭以讀書 卽此讀書 或勤於讀書 定省不時 堀面蓬髮 此非讀書

日常事의 가장 基礎의인 일로써 자신의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父母에게 敬하는 구체적 行爲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上의 基本 行爲는 讀書에 있고 그 讀書는 實際의인 生活에서 知行合一⁶⁰⁾을 보이는 것이어야 할을 가장 卑近한 一例로 提示하고 있다고 보겠다.

修身이 並行되지 않은 平天下가 있을 수 없고 凡常에서 道를 잊고 비약할 수 있는 偉業이 없다는 것이 作家의 意識이고 보면 이제 처음으로 士가 되려는 富人에게 제시될 上의 德目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要求條項들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一次文卷은 作家의 上意識을 客觀化하여 단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作中人物의 實狀에도 가장 합당한 미열리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도 군수는 역시 公正性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富人은 乾沒하다고 하면서 利害에 고쳐 달라 하였다. 私利추구가 兩班의 正道는 아니지만 社會構造上 兩班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利害를 획득할 수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兩班에게 希古尚志와 忍饑耐寒手無執錢

60) 「原上」 및 주 23) 참조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실은 이와같은 構造上의 惡弊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第二文卷에서 보여준 諸般 行態는 조금도 틀림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上의 所行이요 方法이다.

예초에 굽주는 누구의 雜音 들기 위하여 文卷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본명 있었던 사실이 그 어느 쪽의 비양심으로 변복될 수 있는 소자를 방비함으로써 사실을 사실대로 公認시키자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매번 사건을 변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常人인 富人에게 보다는 兩班인 旌善兩班에게 있으며 어느 면으로 보아도 公認化됨으로써 유리한 입장을 얻게 되는 것은 오히려 富人이다. 그러나 郡守는 누가 유리하든 간에 그에 구애될 없이 執法之士로서의 公正을 보였을 뿐이다.

요컨대 ‘兩班傳’에서의 郡守는 ‘穢德先生傳’에서의 蟬橘子, ‘馬駢傳’에서의 宋旭과同一한 意識下에 설정된 人物로서 論議의 對象인 旌善兩班 自體가 二律背反的 素地를 内包하고 있는 逆說的 人物임으로 하여 作家自身이 支持하고자 하는 命題에 絶對的 信憑性을 부여하기 위해 象徵的으로 설정된 人物를 作中人物로 置換한 作家이다.

V. 富人의 作中 位相과 作家意識

이미 밝혀진 바 있거니와 一次的으로 ‘兩班傳’에서의 富人은 郡守와 對立되는 論議者の 位相을 지닌다. 郡守가 内面性(本質), 公信性을 代辯하는 論議者라면 富人은 皮相의이고 私的인 觀點을 대변하고 있는 論議者이다. 그는 ‘穢德先生傳’의 子牧, ‘馬駢傳’에서의 趙關拖와同一한 作中 位相을 가지는 人物이다.

아마 言及한 바 있거니와 그가 담당한 論議의 對象은 旌善兩班이 아니라 兩班一般이고 子牧이 蟬橘子의 逆說에 의해, 趙關拖가 宋旭의 逆說에 의해, 처음 자신이 提起한 命題를 스스로 변복하고 相對의 逆說에 承服하듯이 郡守가 제시한 두개의 文卷에 의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兩班에 대한 見解를 수정하고 있는 人物이다.

富人의 兩班 및 自身에 대한 認識은 다음과 같은 文面에서 확인될 수 있다.

兩班雖貧 常尊榮 我雖富 常卑賤 不敢騎馬 見兩班 則踴躍屏營 頤匍拜庭 扭鼻膝行
 行我常如此其謬辱也 今兩班貧 不能償糴 方大睿 其勢不能保其兩班 我且買而有之
 遂踵門而請徵其糴 (밀줄 펼자)

自身의 卑賤함이나 兩班의 尊榮함에 대한 인식은 순전히 外行的 (인용문
 밀줄부분 참조) 樣態에 그 판단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곧 “嚴行首者 里
 中之賤人役夫 下流之處 而恥辱之行也”라 한 子牧의 嚴行首 認識 根據나 아침
 지자에서 목격한 貿市者의 外行에서 交道를 파악한 趙關拖의 認識 根據와 同
 軌의 認識 基準이다.

富인이 양반에게 바치는 존경 또한 이미 尊敬의 内面(尊敬心)을 상실하고
 그 外面(尊敬을 표하는 行爲)만이 남아 있다. “我常如此其謬辱”은 이것을明白
 하 드러낸다. 尊敬心의 발로로 표현된 尊敬의 行爲가 謬辱으로 느껴질 수 없
 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러나 富人에게 있어서 尊敬(尊敬)의 内面인 尊敬心은
 認識 뿐의 次元이다. 兩班을 사면 자기도 尊榮해 질 수 있다는 發想은 바로 이
 리한 인식 수준에 근거한 것이다. 존경심이 없어도 양반이라는 社會的 標識 때
 문에 常人인 자기가 양반에 대하여 유타법에 존경의 행위를 表出했듯이 他人
 에게 그리한 外形狀의 대우만 받으면 자신은 신선처럼 존영해 지는 것이다.

그런데 ‘穢德先生傳’이나 ‘馬駟傳’에서는 命題와 反命題를 담당하고 있는
 論議者들이 師弟 혹은 同僚로 설정됨으로하여 同類性이 확보되고 다만 事物
 認識의 皮相性 및 外飭性 만이 배격되고 있는데 비하여 ‘兩班傳’에서는 常人
 (富人)과 兩班(郡守)라는 異質의 論議者를 對立시킴으로 하여 富人은 단순히
 皮相의 常識의 認識 基準을 代辯하는 論議者로서의 作中位相을 넘어서 미
 묘한 暗示的 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文脈에 의거하면 첫번째로 對立되어 있는 郡守와 富人の 兩班 論議는 ‘양
 반은 말을 탈 수 있고 常人們로부터 존경을 표하는 행위로써 대우받을 수
 있으므로 양반이고 그 때문에 尊榮하다’는 것과 ‘富而不吝한 義, 急人之難하는
 仁, 惡卑而慕尊하는 智, 이것이 眞兩班’이라는 것이다. 外行과 外物에 依
 據하는 本質 認識과 内面과 自存에 依據한 本質 認識의 對立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양반을 사려는 富人의 行爲에 대해 가하진 것이기도 한 郡守의 이 論議가 富人의 皮相的 認識에 대한 反語의 謷刺的 칭송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富人에게 眞兩班의 內的 本質인 仁·義·智가 전혀 인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認識 基準의 皮相性을 의미하는 것이 一次的인 것이겠지만 尊敬心이란 尊敬하는 者가 尊敬하는 對象의 行爲에서 존경할 만한 價值를 발견한 때 自發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兩班傳에서의 兩班의 狀況은 外的 標識인 양반이란 社會의 身分以外에는 常人에게 그 尊榮性을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仁도 義도 智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구나 平凡한 日常에서도 知行合一을 실천하는 것이 土의 基本 자세라는 것이 연암의 의식이고 보면 兩班의 仁·義·智는 반드시 그 外行으로 表出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外皮만으로 사물을 認識하는 常人에게도 그것은 반드시 感知된다는 論理가 成立된다.

그러나 常人인 富人은 분명 尊敬을 表한 이유(尊敬心)를 認識하지(發見) 못한 채 慣習에 매여 尊敬을 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므로 ‘謬辱’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富人の 친박하고 皮相의인 양반 인식과 外面의 假飾의 존경 행위는 眞兩班의 尊榮性을 완전히 상실하고서도 慣習의 존경을 여전히 강요하는 兩班들의 非行을 풍자하는 反語이기도 하다. 그리고 反語의 으로 暗示된 兩班의 本質(仁義智)回復은 旌善兩班의 價值化와 並置되면서 士道의 回復이라는 主題로 歸屬된다.

富人과 郡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二次 論議는 第一文卷의 提示와 그에 대한 富人の 言及이며 三次 論議는 第二文卷 提示와 그에 대한 論議이다.

‘穢德先生傳’에서 子牧과 蟬橘子의 交友論議를 통하여 일단 두 人物의 論議의 觀點을 정립한 후 선글자에 의한 嚴行首論을 전개함으로써 逆說의 正當성이 確立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듯이 ‘兩班傳’에서도 앞서 예시한一次 論議에서 우선 富人과 郡守의 觀點基盤을 규명함으로써 지극히 客觀화되고 있는 두개의 文卷에 論議의 觀點을 적용시킬 수 있는 暗默的 基盤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郡守의 作中 位相을 밝히면서 두개의 文卷의 意味를 이미 開進한 바 있다. 再言하면 第一文卷은 日常의 百行이 兩班 다음에 違背

됨이 없는 것이 곧 兩班의 基本 資質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文卷의 마지막 文句에 明記) 실제로 日常的 細事와 관련된 行爲를 열거해 보인 것으로 그러한 모든 行爲의 實踐에 있어서 그 행위의 실행만이 양반을 양반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열거의 첫머리에 제시한 ‘希古尚志’의 心的 자세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러한 心的 자세에 근거한 諸般 細行은 모든 양반에 두루 해당되는 必要條件임을 文卷의 가장 첫머리에 明示하고 있다. 즉 郡守에 의하여 提起되는 兩班論은 ‘希古尚志하며 日常의 百行이 無違兩班이면 곧 양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富人의 의견은 ‘太乾沒’이다.

第一文卷에 열거되어 있는 百行에 在內해 있는 意味는 行爲 열거의 시작과 끝에 “絕棄鄙事⁶¹⁾ 希古⁶²⁾ 尚志” “凡此百行有違兩班”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個個의 行爲가 어쨌서 鄙事が 아니며 希古尚志의 의미를 회득하게 되는 것인가 즉 그것이 왜 틀림없는 양반의 행위인가가 郡守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음으로 하여 富人으로 하여금 처음에 提起했던 命題인 ‘兩班常榮榮’이라는 판단을 전복시켜 ‘太乾沒’로 수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皮相的 認識 次元에 놓아둔다.

즉 ‘穢德先生傳’에서 嚴行首의 行爲의 内在的 意味가 선글자에 의하여 설명하게 제시되고 子牧은 거기에 承服하며 ‘馬駢傳’의 경우에도 宋旭과 張德弘에 의하여 爵子之交의 態度와 面目에 在內한 意味가 낱낱이 해명되고 그 해명에 의하여 趙闊拖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는데 비하여 ‘兩班傳’의 경우에는 각각의 行爲에 在內한 의미가 보다 높은 次元의 認識者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음으로 하여 低次元의 認識者를 여전히 自身의 認識 次元에 그대로 떠물려 둔다. 그러나 이와같은 第一文卷에 대한 論議의 放置 그 自體로서 作家는 이미 論議를 完結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열거된 百行에서 “絕棄鄙事 希古尚志”의 의미를 認識하면서 그 行爲를 實行할 때 그것은 틀림없이 兩班의 行爲로서 위배됨이 없는 行爲의 의미를 가지지만 富人

61) 이경우 ‘鄙事’는 文卷의 文脈으로 보아 常일 즉 마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野卑한 行爲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禁止條項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들이다.

62) 辭海에 古의 해석은 “異於時俗之謂 如云高古”라 하였고 혼히 古는 時間을 超越하여 古來로부터 正理로 인식되어 있는 傳統의 眞理를 말한다.

처럼 그 内在的 意味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단지 外行만을 답습, 실천할 때 그것은 그야말로 乾沒하기 짜이 없는 偽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客觀的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행위들이 곧 旌善兩班의 行爲로 暗脈을 잇고 있다는 論據도 확보될 수 있다. 앞서 論證하였듯이 旌善兩班은 無自覺的인 慣習에 의해 士道의 基本 德目을 실행한 人物이다. 그리고 富人의 太乾沒이란 論議는 곧, 旌善兩班에 있어서와 같이 無自覺的 無意識的 無意志的인 諸般 兩班 行爲는 그것이 틀림없이 양반다운 행위일지라도 乾沒할 뿐이라는 論議이기도 하다. 따라서 ‘太乾沒’이란 論議는 郡守의 見解이기도 하고 富人의 見解이기도 하며 本質 認識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며 皮相性에 머문 認識이기도 한 二重性을 内包하고 있고 그 二重性은 文脈 構造에 그대로 對應되고 있다.

第二文卷은 上의 私利追求에 관한 論議이다. 文卷에는 利益追求의 行爲의 實狀만이 客觀的으로 提示되어 있을 뿐 郡守 自身의 論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에 대 한 富人의 論議는 ‘盜’이다. 表現 方式의 同質性에 의거하여 二次文卷에 대한 郡守와 富人의 論議도 一次文卷의 경우와 同一한 方式에 의해 해석될 수 있으므로 ‘盜’란 見解는 郡守의 論議이기도 하고 富人의 論議이기도 하다는 結論을 얻을 수 있다.

兩班의 利益追求는 皮相的 判斷, 洞察力 운운한 여지도 없이 분명히 ‘盜’라는 意味로서 결국 士道에 있어서 가장 배격되어야 할 것이 私利追求임을 꾹꾹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富人의 가장 중요한 作品內的 意味는, 傳의 형식을 차용하고 있지만 산상은 逆說과 反語로서 旌善兩班과 兩班一般에 대한 論議를 개진하고 있는 ‘兩班傳’에서, 郡守와 더불어 逆說 成立을 가능하게 하는 두 命題의 한 쪽을 담당한 論議者라는 사실이다.

郡守가 内的 本質과 公正성을 認識의 觀點으로 하고 있는 論議者라면 富人은 常識과 外見을 認識의 觀點으로 하고 있는 論議者이다. 論議의 對象에 대한 對立면 이들의 見解는 동시에 反語的인 讽刺性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기도하다.

한편 作品의 結構에서 드러나는 富人の 모습을 통하여 常人에 대한 作家自身의 見解를 間接 推出할 수도 있다.

즉 認識의 한계, 利益의 追求, 理念의 不在 등이 富人에게서 드러나는 特性이다.

그러나 低級하고 皮相的인 認識 水準인, 希古尚志의 精神的 次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理念 不在인, 利益追求가 最大의 目的인⁶³⁾ 一個 常人이자만 私利追求를 위하여 盗가 될 수는 없었던, 倫理的 良心만은 堅持하고 있었던 人物로 構造化함으로써, 讀書로 연마한 高度의 認識 水準과 精神的 理念의 바탕하에 철저한 倫理觀이 정립되어 있어야 할 士階級에 대한 反語的 質問을 제기하고 있다. 富人の 認識 次元이 低級할 수록 그의 倫理의 位置 還元은 相對的인 強度로서 士의 倫理의 本位置에로의 還元을 強調하는 効力を 발휘할 수 있다.

富人은 실은 가장 典範的인 常人(아마도 農·工·商 中 商일 뜻)으로서 金錢의 偉力を 빌어 자신의 分守을 超越하려 했던 人物이다. 商이 人間의 倫理를 破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最大의 利潤을 추구한다는 것은 商人으로서는 正道이다. 그러나 兩班(士)이 되려는 著로서 ‘願改爲可利’란 邪道이다. 그의 이 發言은 그가 士가 될수 없고 商에 머물러 있어야 합당한 人物임을 의미 한다. 富人の 見解에 대한 逆說 提起者로서의 作中 位相을 가지고 있는 郡守의 文卷에 의하여 富人으로 하여금 最初의 자신의 견해와 거의相反되는 兩班論을 確立하게 하면서도, 그의 認識 次元을 郡守의 것과 일치시키지 않고(이점 ‘誠德先生傳’ ‘馬驥傳’과 구별됨은 아니 언급) 여전히 皮相的 水準에 남겨 두는 것은 바로 富人은 그의 內的 資質에 相合하는 社會的 位置로 還元되어야 한다는⁶⁴⁾ 作家意識을 作品 結構로서 明示하기 위한 발판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立傳의 대상으로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作家의 意識속에 不完全한 最少價值量의 兩班으로 設定되어 있는 정선 양반이 作品 結構上 결국은 양반을 褒美하고 마는 것도 同一한 意圖의 反映이다.(郡守의 離職에 의하여 富人

63) 그가 ‘富人’이라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願改爲所利”등에서 드러난다.

64) 이것은 곧 조선조 말기의 사회질서 및 신분혼란에 대한 견해파력으로 자신의 外的 신분에 차당한 内質을 갖추지 못하고 金力과 權力으로 外形회득에만 광분한 모든 邊常에 대한 풍자적 경고라 할 수 있다.

만이 位置還元되었을 뿐 旌善兩班의 身分回復 如否에 대하여는 放棄되어 客觀的 判斷에 留保하고 있다. 그러나 旌善兩班의 品性으로나 法的 効力으로나 富人이 같은 罷의 連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정선양반의 兩班權은 회복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作品結構로서 推出할 수 있는 ‘兩班傳’의 가장 深層部에 자리 잡고 있는 作家意識은 地位의 高下(旌善兩班과 郡守, 第一, 第二文卷類의 兩班으로 表象됨), 身分의 班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階層은 內的 資質과 外的 身分 즉 名實이 相合한 本位置로 還元 定立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⁵⁾

Ⅶ. 結

‘兩班傳’은 傳統的인 전 장르의 樣式的 特性을 堅固히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극히 隱蔽的인 技法으로 ‘論’ 또는 ‘說’의 方式을 擬用하여 양식적 변이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兩班傳’은 個人的 卓越성을 記錄保存함으로써 동시에 社會的典範을 제시하려는 實存人物의 傳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虛構的으로 假托된 人物에 作家의 倫理意識이나 社會觀을 透入하려는 托傳으로서의 성격이 더 두드러진 作品이다. 그러나 旌善兩班이 그 실제의 신원은 확인될 수 없다 해도 餘他의 史料를 통하여 燕岩當時에 충분히 實在하였을 가능성을 가진 個人이라는 점에서一般的인 托傳보다는 훨씬 普遍性과 리얼리티를 획득하고 있다. ‘兩班傳’이 彙傳의 題名을 가지고 있음에도 旌善兩班의 例話 하나만으로 完成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假托性으로 作家의 意圖가 이미 십분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旌善兩班의 일화 속에 文卷의 형식으로 별조된 두개의 傳을 삽입시킴으로써 ‘兩班傳’ 전체가 세개의 個別의 傳의 集積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兩班傳’은 그 人物 設定 方式이나 人物의 價值化 方式 그리고 作品에 内在한 作家 意識에 있어서 ‘穢德先生傳’, ‘馬駒傳’, ‘鳳山學子傳’, ‘易學大盜傳’ 등과 다른한 동질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作品들과 아울러

65) 이와 같은 意識은 “穢德先生傳”에서는 적절 文面上에 상당히 장황하게 開進되어 있다.

‘兩班傳’을 지배하고 있는 作家意識은 事物의 價值와 位置가 영뚱하게 頽倒되어 있다는 季世的 不安感, 危機感이며 이러한 危機感을 作品으로 構造화하고 있는 技法이 곧 逆說과 反語이다.

사장 無能하고 쓸모없이 보이는, 兩班의 最末端에 위치하여 드디어 兩班을 상실하고 마는 한 庶上를 作品論理로써 絶對 潔白의 表象으로 부각시킴으로써 士의 本源을 재확인하는 한편 認識의 次元과 理念의 水準이 七보다는 五 혹은 低級한 常人인 富人에게 倫理的 良心을 부여 원 위치로 환원시키는 作品結構로서 士의 本位置還元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곧 最少價値에 最大價置를 부여함으로써 強調의 極大化를 폐하면서 肯定을 통해 否定을 감행하고 있는 反語로서 이러한 技法의 特性 그 자체가 이미 作家의 결망과 위기감의 반영이다. 旌善兩班은 作品에 드러난 그 自體로서 이미 肯定的 命題와 否定的 命題를 兩立시킬 수 밖에 없는 逆說의 人物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論議는 치극히 客觀的인 提示的 技法속에 은폐되어 暗示되면서 兩班一般 및 社會的 명폐에 대한 풍자로 확대되어 立傳人物의 二重價値의 逆說性은 ‘양반전’의 양식적 변이를 불가피하게 한다.

郡守와 富人の 作中 位相은 旌善兩班의 逸話속에 은밀하게 内在되어 있는 兩班論을 開進하기 위해 교묘하게 偽裝되어 있는 對立된 두 論議者이다.

郡守는 本質과 악과 公正性의 觀點에 선 論議者이며 富人은 常識과 皮相의 次元에 선 論議者로서 각각 ‘穡德先生傳’과 ‘馬駟傳’에 있어서의 蟬橘子 및 宋旭, 子牧 및 趙闊拖와同一한 성격을 지닌다.

對立된 論議者로서의 作中 位相을 固守하면서 副次的으로 郡守는 執法之士(在位之士)의 典範性을 富人은 常人(商人)으로서의 典範性을 表出하면서 각기 兩班(士)의 本源定立이라는 主題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요컨대 ‘양반전’은 旌善兩班을 통하여 士의 最少 基本 資質을 確認하고 郡守와 富人の 言行 속에 客觀 提示的인 方式으로 은폐되어 있는 對立된 兩班論을 통하여 兩班의 本質을 再確認하고 있는 作品으로서 逆說과 反語의 技法을 채택함으로써 重疊된 강한 暗示的 讽刺를 내포하고 있다. 그 人物設定 方式이나 價值化 方式, 文脈, 作品結構등을 통하여 극도의 季世의 危機感과 倫理의 本源回復에의 강한 갈망을 확인할 수 있다.